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1.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특정 정치인 홍보

▲ 2010 - 1090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기일보 발행인 이 현 락

〈주 문〉

경기일보 2010년 4월 13일자 3면 「택시기사 김문수 ‘어디로 모실까요?’/에세이집 출간… 운전석에서 본 도민 모습 담아내」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경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체험 도지사로 불린 김문수 경기지사가 에세이집 ‘어디로 모실까요?~나는 경기도 택시운전사’를 출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필기시험과 신규자 연수, 정밀 검사를 거쳐 택시운전면허를 취득한 김 지사가 이듬해 설 다음날인 2009년 1월 27일 수원에서 첫 운전대를 잡은 뒤 18차례의 택시운전을 하면서 겪은 일과 감정 등을 적은 글이 담겨 있다.

김 지사는 그동안 택시체험이 1~2회에 그칠 것이라는 일반적 생각과 달리 지난 3일까지 광주시 마지막 택시까지 명절이나 토·일요일을 이용, 도내 18개 시·군에서 택시운전을 했으며 달린 거리만 26개 시·군 2천368km에 달한다.

모두 6부로 구성된 에세이집은 김 지사가 이 기간 동안 체험 후 매일매일 승객들과 나눈 대화, 동료 기사들의 애환, 운전석에서 본 경기도의 모습 등을 직접 메모했다.

특히 술에 취해 요금을 깎아 달라고 떼를 쓰는 손님과의 에피소드, 18차례의 운전 중 네 번이나 사납금을 못 채워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었던 경험, ‘정치적 쇼’라는 비난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소개한 대목이 눈에 띈다.

김 지사는 “택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쇼가 아니며 분명히 필요한 쇼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택시운전 체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택시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8차례 직접 택시영업을 하면서 겪은 일들과 심경을 다룬 책을 출간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현직 도지사가 직접 택시 운전면허를 취득해 운전기사로 현장을 뒀던 경험을 책으로 냈다는 사실은 뉴스거리이기는 하나 당사자가 곧 실시될 지방선거에 출마할 정치인이고, 책 출간이 출마와 때를 같이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홍보효과를 노린 행위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이를 당사자의 얼굴 사진이 담긴 책 표지사진까지 넣어 박스기사로 처리한 것은 특정 정치인의 홍보를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사는 신문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①항(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17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인일보 발행인 송 광 석

〈주 문〉

경인일보 2010년 4월 30일자 2면 「김문수지사 ‘해결 삶의 현장’」 제하의 기

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경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내 기업 맞춤형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29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화성시 소재 일진전기를 찾아 공장 증설 허가, 공장내 도유지 매도, 줌도둑 퇴치용 CCTV 설치, 자전거 도로 확충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일진전기는 그동안 공장 증설을 위한 인근 부지를 확보했음에도 증설 허가가 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김 지사는 공장 생산라인부터 고층타워까지 돌아본 뒤 전기전자용 케이블이 클린룸에서 생산되는 등 청결 업종임을 확인, 화성시에 허가를 지시했다.

또 공장 일부에 포함된 도유지로 인해 높은 월세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공정한 감정가로 매도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했다.

이밖에 직원들의 건의로 공장 일대의 택지 골목에 방법용 CCTV를 설치하고, 수원대학교 인근 택지와 공장 일대를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밤 용인의 도루코 공장을 찾아 제조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 여성근로자 보육문제 등을 논의하는 등 매달 10여개 도내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매달 10여개의 도내 기업들을 찾아 현장에서 민원사항을 듣고 해결해주고 있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다.

현직 도지사가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되도록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 수행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기사는 김 지사의 이런 일상적인 업무 수행 행적을 마치 무슨 큰 일이나 한 것처럼 박스기사로 부각해 처리하였다. 또 리드 부분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내 기업 맞춤형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적었으나 김 지사가 왜 이런 현장방문에 나섰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사례로 든 기업은 언제 방문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기사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단순한 업무 수행을 큰 실적인 것처럼 과장되게 기사화한 것은 곧 실시될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치인의 홍보를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①항(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39 신문윤리강령 위반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병 찬

〈주 문〉

전북도민일보 2010년 5월 31일자 3면 「정운천 후보 부인 최경선여사 글 ‘화제’/‘쌍발통뉴스’에 편지글… 남편 출마에 인간적 고뇌 담아」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전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운천 도지사 후보 부인인 최경선 여사가 지난 25일 선거홍보사이트 ‘쌍발통뉴스’에 올린 편지 ‘전라북도 어머님께 올리는 글’이 도청 홈페이지 등에 올라와 읽히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1시 현재 이 편지는 쌍발통뉴스에서 400여 명이 조회를 했으며, 도청 홈페이지에서도 100명 이상 읽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 여사는 편지에서 “제 남편의 출마 제의를 받고 오랫동안 고민했으며,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니 저에게 천직인 교직을 그만두고 함께 내려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최 여사는 “교직을 그만두며, 사랑했던 제자들을 뒤로 한 채 교문을 나서며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며 “친정아버지께서 운명을 하시며 남긴 ‘너는 이제 전라도에 뼈를 묻어야 한다. 잘하거라’는 유지를 받들어, 남편의 고향인 전북도를 위해, 전북의 미래를 위해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최 여사는 전라북도내 내려와 농촌, 재래시장, 요양원 등 전북 곳곳을 누비며 전북의 경제적 낙후와 도민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다.

그는 취업을 걱정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전북을 떠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전북의 어머님들의 자녀가 고향에서, 중앙무대로 나가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에 출마한 정운천 후보의 부인이 선거홍보 사이트에 올린 글의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다.

기사가 전하는 정 후보 부인의 글 내용은 특별히 색다른 이야기를 담은 것도 아니고 공직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의 부인이 선거홍보 사이트에 실은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보도 가치가 있는 글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이를 작지 않은 크기의 박스기사로 다루고 같은 면의 다른 기사들과 차별되게 얇은 바탕색을 사용해 편집함으로써 독자들의 시선을 끄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이 기사는 특정후보 진영에 긍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작성되고 편집된 기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①항(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자유

-홍보일색의 섹션 및 기획기사

▲ 2010 - 109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2.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3. 한국경제 발행인 신 상 민
4. 헤럴드경제 발행인 박 행 환
5.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6.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7.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8.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승

〈주 문〉

朝鮮日報 2010년 3월 30일자 「조선경제 LIFE 섹션」, 4월 13일자 「조선경제 특집/근로자 직무 능력 JUMP」, 4월 16일자, 「조선경제 특집/Real Estate」 「조선일보 특집/한국 MBA 가는 길」 등 4개 섹션, 東亞日報 3월 31일자 「Health & Beauty/병원특집」, 4월 7일자 「CAR」 등 2개 섹션, 한국경제 3월 31일자 「Luxury Fashion」, 4월 15일자 「올 봄 음료시장 트렌드」 등 2개 섹션, 헤럴드경제 4월 8일자 「파워 코리아」, 4월 12일자 「2010 서울 SOC 건설」 등 2개 섹션, 중앙일보 4월 13일자 「Level Up/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4월 15일자 「국내 MBA 가는 길」 「행복한 결혼」 등 3개 섹션, 매일경제 4월 14일자 「MBA」 「SRI(사회책임투자)」 등 2개 섹션, 문화일보 4월 15일자 26~27면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기획특집, 서울경제 4월 16일자 「2010 대한민국

경영혁신 대상」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적시 신문들은 부동산이나 보석, 병원, 자동차, 지역행사, MBA, SOC 등 여러 가지 주제로 2면이나 8면 또는 12면짜리 섹션 또는 기획특집을 제작하면서 특정한 지역 · 상품 · 부동산 · 기업체 등을 장점 일색으로 소개하고 해당 기업 또는 해당 상품의 광고를 기획특집 면이나 섹션지면 전체에 걸쳐 게재했다.

이 같은 제작 방식은 독자나 소비자들에게 기업 또는 상품에 대해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더러 신문의 독립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4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부산일보 발행인 김 종 렬
2. 국제신문 발행인 이 정 섭
3.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주 문〉

부산일보 2010년 5월 28일자 29~36면(제15회 바다의 날 ‘해양특집’/21세기 해양강국을 연다) 중 31면 「한진중공업/쇄빙선 만든 기술 ‘조선 중가’ 명성 잇는다」, 「삼성중공업/지난달 수주잔량 창사 이래 첫 세계 1위」, 「대우조선해양/풍력발전 등 신성장 미래 수익사업 박차」, 33면 「한국해양대/대한민국에서 세계로… 해양지성의 두 산실」, 34면 「부산항만공사/동북아 물류 허브 꿈꾸며 항만 변화 중심에 ‘우뚛」, 6월 4일자 26~29면(골프장 특집) 중 27면 「빠어난 접근성 양산CC 부산 · 울산서 20분이면 OK」, 29면 「풍광 즐기며… 별 보며… 스타스콧CC서 라운딩 어때요?」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5월 31일자 29~36면

(블루오션 그린부산/국제신문 해양특집) 중 30면 「북항재개발 진척 어디까지/외곽시설 축조 공정률 50%…유찰됐던 상부시설 내달 재공모」, 31면 「한진중공업/한진중 수빅조선소 수주 대박… 올 들어 초대형선 19척」, 33면 「비엔 그룹의 도전/크루즈선으로 다시 신화 쓴다」, 35면 「부산 수산업 생산량 56% 차지하는 대형 선망」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6월 9일자 15~22면(특집 부동산) 중 18면 「BTL 분야 선두주자 동우 E&C」, 20면 「대구테크노폴리스 상업용 지 이달 중순 파격 분양」 제하의 기사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적시 기사들은 각각 해양특집, 골프장특집, 부동산특집 섹션에 게재된 기사들로 특정기업이나 대학 등을 장점만 부각하여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같은 면이나 같은 섹션 안의 다른 면에 해당 기업 또는 대학의 광고를 함께 게재하였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특집이라는 명목 아래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기사가 작성되었다는 의혹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한국조선사회 송정규 회장

〈부산일보 2010년 5월 28일자 31면〉



부산광역시 송정규

〈부산일보 2010년 6월 4일자 27면〉

-약품, 특정의원 및 치료법 홍보

▲ 2010 - 1218 신문윤리강령 위반
충청투데이 발행인 정 남 진

〈주 문〉

충청투데이 2010년 10월 14일자 11면 「지역 거점병원 넘어 중부권 명문병원 도약/하나병원」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충청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올해로 개원 12주년을 맞은 청주하나병원(원장 박중겸)이 제2의 도약을 선언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넘어 중부권 최고의 명문 병원으로 발돋움을 시작했다.

하나병원은 최근 신관을 신축해 척추병원을 개원했다. 또 본관에 있던 건강증진센터와 치과를 신관으로 옮겨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종합검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본관을 증축하고 진료과를 센터화해 병원 내 의료전문화를 집중화하는 일대 변화를 꾀했다. 심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인공신장실 등을 새롭게 꾸미고 소아내시경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병원 박중겸 원장은 “그동안 대부분 종합병원들은 진료과목을 늘리는 데 주력해 백화점 형태의 나열방식 병원을 지향했지만 이제는 전문 진료과를 집중화하는 센터중심의 병원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의사 개개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보다 센터에서 여러 명의 의사가 정보를 교환하며 진료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 척추병원 개원

최근 완공된 신관에는 하나병원이 내세우고 있는 척추병원이 들어섰다. 척

추병원에는 척추전문수술실과 척추전문 영상의학과 등이 자리 잡았다.

특히 PET CT와 MD CT, MRI, 현미경 수술기 등 첨단기기가 설치된 것이 눈에 띈다. PET CT는 암에 관한 A부터 Z까지를 관찰할 수 있는 영상의학 장비로 조기 암 진단과 악성종양 구별, 암의 전이 및 재발진단, 암치료 후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이밖에 간질과 치매, 뇌혈관 등의 뇌질환과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 질환에도 응용될 수 있는 등 영상의학에 관한 거의 전천후 성능을 가지고 있다.(중략)

◆ 심혈관 · 소화기센터, 인공지능장실 개설

본관 2층(330㎡)에 들어선 심장혈관센터는 진료실과 심기능검사실, 심전도실, 수술실 등으로 구성됐다.

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혈관조영촬영기와 혈관내초음파, 대동맥펌프 등을 비롯해 심초음파, 24시간 생활심전도, 동맥경화검사기, 운동부하검사기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췄다. 특히 심장관련 질환의 특성과 위급함을 감안해 심장내과 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하며 각종 심장 관련 질환에 대한 검사에서부터 수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있다.(중략)

◆ 첨단의료장비 대거 도입

하나병원은 제2의 도약을 선언하면서 의료장비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만도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는데 100억 원 이상을 들였다. 전신 암을 진단 할 수 있는 PET-CT와 64MD CT, 혈관조영촬영기, 위장조영장치, C-arm, 디지털 촬영기를 비롯해 MRI 등을 추가로 도입했다. 의료장비면에서는 대학병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중략)

◆ 또 하나의 자랑 장례식장

자매시설인 하나장례식장은 연면적 3277㎡에 7개의 분양소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지하 장례식장에서 지상 장례식장으로 과감하게 틀을 바꿨으며 장례절차도 유가족의 편의와 장례식의 예의를 중시함으로써 지역 장례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중략)

지난해는 의료기관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아 최우수 의료 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 지역과 함께하는 이웃사랑실천 병원

하나병원은 이웃에 대한 사랑도 남다르다. 지역 기관단체와 기업체, 사회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각종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추천할 경우 한 달에 한 명씩 무료진료와 수술 등을 해주고 있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청주하나병원을 소개한 기사다. 기사는 머릿부분에서 “올해로 개원 12주년을 맞는 청주하나병원이 제2의 도약을 선언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넘어 중부권 최고의 명문병원으로 도약하기 시작했다.”고 기술한 것을 시작으로 이 병원의 갖가지 장점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병원장의 발언 내용을 함께 전하고 있다.

특정 병원에 대한 이러한 기술들은 이 기사가 해당 병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병원의 홍보를 도울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5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백 석 기

2. 인천신문 발행인 이 광 립

〈주 문〉

아시아투데이 2011년 1월 21일자 23면 「전문병원을 찾아서/여성질환 전문 제일병원 김재욱 원장/여성건강 지킴이 48년… 첨단 · 정성 갖춘 ‘여성암 치료 메카’」 제하의 기사, 인천신문 1월 27일자 20면 「현대유비스병원 새 도약 꿈

꾼다/7월 증축공사 완료… 대학병원 제외 지역 최대」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아시아투데이 인천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시아투데이)=『제일병원은 지난 1963년 국내 최초 여성전문병원으로 출범해 현재 여성질환 진료실적 및 출산분만 건수 전국 1위를 굳건히 지키며 대한민국 여성의학 발전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여성 전문병원이다.

제일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 철저히 여성건강에 포커스를 맞춰 반세기에 걸쳐 여성질환 치료와 연구에 매진해 오며 쌓아온 임상적 경험과 노하우다.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내과, 외과, 소아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피부과, 안과 등 17개 모든 진료과를 임신, 출산, 불임, 여성암, 갱년기 질환까지 연령대별로 발생할 수 있는 여성 질환에 맞춰 토털의료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개원한 국내 최초의 여성암센터는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갑상선암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특수 암만을 집중적으로 진단, 치료, 관리하는 전문센터로 암센터의 무한경쟁시대에 여성전문병원으로서의 경쟁력을 극대화시켰다.(후략)』

(인천신문)=『인천 남구 송의로타리에 위치한 현대유비스병원은 경인지역 최대의 척추 · 관절 전문병원으로 꼽히고 있다.

12층 높이의 신관과 7층짜리 본관, 2개동이 이어져 있으며 300병상 규모다.(중략)

이 병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는 7월 완공을 목표로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꿈꾸고 있다.

기존 ‘척추 · 관절분야 수술 전문병원’이라는 타이틀을 뛰어넘어 진료과(치

과, 안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검진센터 등)를 신설, 인천 최대의 전문센터화된 종합병원을 세운다는 목표다. 병원 증축이 완료되면 유비스병원은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인천에서 가장 큰 병원이 된다는 것이다. 병상수도 지금의 300병상에서 400병상으로 늘어나게 된다.(중략)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소문난 실력 있는 의료진 영입과 임상연구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최신식 진료시설과 호텔급 고객 휴식공간을 모두 갖추 계획이다.

병원 꼭대기에 대형 강당을 마련해 지역의 봉사단체 등에게 개방, ‘열린 병원’ ‘친근한 병원’의 이미지를 피력할 방침이다.

또 소외된 이웃과 의료 사각지대를 돌며 기존의 ‘무료진료 활동’을 크게 확대하며, 무료 간병인제 도입 등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본문 중에 ‘국내 최초 여성전문병원’ ‘국내 최초 여성암센터 개원’ ‘여성질환 진료실적 전국 1위’ ‘대한민국 대표 여성병원’ ‘여성전문병원으로서의 경쟁력을 극대화시켰다’ ‘토털의료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등 최상급의 표현과 판촉용 메시지를 남용한데다 원장의 이름을 중간제목보다도 더 크게 부각시키고 얼굴사진까지 곁들여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였다.

인천신문 기사는 오는 7월 완공 목표로 증축공사 중인 척추 · 관절 전문 현대유비스병원을 소개하면서 본문 중에 ‘경인지역 최대의 척추 · 관절 전문병원’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인천에서 가장 큰 병원’ 등 최상급의 표현들을 사용한데다 증축공사 완료 후에 도입할 계획인 각종 의료시설과 서비스를 장황하게 전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검증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특정 병원의 영리를 돕거나 특정 병원이 알리고 싶어 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홍보성 기사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

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골프장 선전 기사

▲ 2010 - 110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한국경제 발행인 신 상 민

〈주 문〉

매일경제 2010년 4월 12일자 B5면 「한폭의 수채화 그곳에서 날리는 샷/중국 난징 백마산장CC」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4월 13일자 B6면 「골프 · 스키장 · 호텔... 명품 리조트가 한 곳에/평창 알펜시아 6월 그랜드 오픈」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매일경제)=『중국 6대 고도(古都) 중 하나인 난징에 위치한 백마산장CC는 원시상태 그대로 보존된 코스 환경을 자랑한다.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라운드를 즐긴 후에는 산기슭에 위치한 별장에서의 아늑하고 편안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다. 오는 24일에 열리는 골프대회에 참가하면 짜릿하고 긴장감 넘치는 라운드까지 덤으로 제공한다.(중략)』

현재 전장 7075야드의 18홀 국제골프코스 규격을 갖추었고, 안후이성 '861' 중점 기획 개발 대상으로 선정돼 5년 이내에 63홀 고품격 골프장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초보자부터 상급 골퍼들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코스로 구성돼 편안함과 긴장감을 동시에 갖도록 한다.(중략)』

△상품정보 = 온누리여행사가 야마모토코리아와 함께 '고객사은 골프대회'

를 개최한다. 중국 난징 백마산장CC에서 4월 23일 이벤트를 하고 24일에 대회를 개최하며 18홀 라운드, 신페리오 · 샷건 방식으로 진행한다. 해외여행 상품권, 수제 골프백세트 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된다. 2박3일 일정과 3박4일 일정이 있으며 요금은 49만9000원부터. 왕복항공권, 전 일정 숙박·식사, 그린피 포함.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4월 23일 출발. (02)2017-7065』

(한국경제)=『'2018 동계올림픽' 개최를 꿈꾸는 평창의 종합리조트 알펜시아가 오는 6월 그랜드 오픈한다. '홀리데이 인 알펜시아 평창 리조트'와 컨벤션센터, 워터파크 오션700, 콘서트홀 등이 추가 완공되는 것.(중략)』

고품격 리조트로서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알펜시아는 국내 최고의 종합리조트이자, 세계 무대에 내놔도 손색 없는 위용을 자랑하게 됐다.(중략)』

'인터컨티넨탈 알펜시아 평창 리조트'는 국내 최초로 리조트 단지 내 위치한 특1급 호텔(5성). 총 238실 규모다. 세계적 호텔그룹인 인터컨티넨탈호텔그룹이 20년간 위탁 운영을 맡았다. 강원도 최초의 글로벌 호텔인 셈이다. 호텔 내 웰니스 센터에는 피트니스와 특급사우나는 물론 강원도의 유일한 전문 스파 서비스로 VIP 웰니스 프로그램 전문 강사진과 테라피스트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각종 테라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는 중국 난징에 있는 특정 골프장을 홍보성 색채가 짙은 제목과 문구를 곁들여 장점 위주로 크게 보도했다. 특히 기사 말미에는 특정 여행사가 이 골프장에서 개최하는 일반인 대상 골프대회를 요금과 항공편, 전화번호를 곁들여 소개했다.

한국경제는 강원도 평창의 특정 리조트를 대서특필하면서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국내 최고" "강원도 최초" "최고의 실력을 갖춘" 등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며 장점 일변도로 소개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고, 이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0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大邱日報 발행인 이 태 열
2. 경북매일신문 발행인 최 윤 채

〈주 문〉

大邱日報 2010년 4월 1일자 9면 「봄, 떼제베 이스트CC 혜택 ‘우수수’」 제하의 기사, 경북매일신문 4월 2일자 15면 「“봄바람 맞으며 그린 산책 나서볼까”/ 떼제베 이스트CC, 파격적 혜택으로 골퍼들 유혹」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大邱日報 경북매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大邱日報)=『안동 떼제베 이스트컨트리클럽이 2010년 봄 시즌을 맞아 파격적인 회원 혜택을 부여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안동시 일직면에 18홀 규모로 들어선 떼제베 이스트CC는 기존 영남권 골프장들의 고가 회원권에서나 볼 수 있는 부킹 위임을 떼제베 이스트 회원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특전은 회원 등급에 따라 최소 월 4회에서 최고 14회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그린피도 정회원(9천만원)의 경우 등록인이면 면제, VIP회원(1억8천만원)과 특별회원(5억원)의 경우 등록인, 지정인 모두 면제가 된다.

특별회원은 동반자까지 전원 회원대우를 받을 수 있어 명실상부한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정회원 및 VIP회원 동반자도 2인까지 준회원의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위임권 역시 사용 범위 내에서 일시 사용도 가능하며, 충북 청원의 떼제베CC 이용 시에도 회원에 준하는 보너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중략)

9홀 증설이 완료되면 현재의 회원권으로 또 다른 골프장 한 곳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중략)

떼제베 이스트CC 박성용 대표이사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미지에 걸맞은 테마형 종합레저타운을 조성해 안동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북매일신문)=『남안동IC에서 지척의 거리에 위치한 떼제베 이스트컨트리클럽이 영남권 최고의 명문 골프장을 지향하며 본격적인 골프시즌을 맞아 파격적인 회원 혜택을 부여하며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중략)

회원 등급에 따라 최소 월 4회에서 최고 14회까지 부여하고 있다. 또 그린피도 정회원이 등록인일 경우 면제되고, VIP회원, 특별회원은 등록인과 지정인 모두 면제된다.

특히 특별회원은 동반자까지 전원 회원대우의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회원 및 VIP회원 동반자도 2인까지 준회원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또 충북 청원의 떼제베CC 이용 시 누리는 혜택은 보너스다.

최근 인근 부지에 9홀 증설 계획도 이미 설계에 들어갔으며 기본 설계가 완성되면 관련 인 · 허가도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9홀 증설이 완료되면 현재의 회원권으로 또 다른 골프장 하나를 새로이 이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떼제베 이스트CC는 2007년 개장 후 동절기마다 꾸준히 코스 단장에 신규 투자를 계속해 왔다. 지난 겨울철에는 소나무, 잣나무 등 수목 200여주와 야생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가 식재해 골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중략)

또한 매주 월요일은 레이디스-데이로 정해 비회원 골퍼들에게 그린피 할인 행사를 통해 여성골퍼들로부터 신선한 반응을 얻고 있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특정 골프클럽이 봄철을 맞아 고객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회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혜택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데다 9홀 증설계획과 골프클럽의 특징 등을 기술하고 골프클럽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까지 게재하였다.

두 신문들이 하루 걸러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보도한 이 기사들은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울 의도로 작성되었다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최고 경영자 동행 취재

▲ 2010 - 1243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 문〉

東亞日報 2010년 11월 1일자 B1면 「‘이마트 PL상품’ 매달 검증하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동행취재/자체상표로 개발 ‘간장맛 치킨’ 맛본 후 “맛있네요, 그런데 식어도 이 맛이 납니까”」 제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맛있네요, 그런데 식어도 이 맛이 납니까. 고객이 우리 매장에서 산 치킨

을 뜨거울 때 먹기는 힘들 텐데요…. 제대로 검증하려면 식었을 때 맛을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 자체브랜드(PL) 상품으로 개발한 간장맛 양념 치킨을 맛본 뒤 ‘칭찬’하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살짝 말을 돌렸다. 방금 요리해 따끈한 치킨의 상태가 오히려 흠이었다. 정 부회장은 “어떤 음식이든 갓 만들면 맛있는 것 아니냐”며 “실제로 고객이 맛보는 것과 같은 상태로 점검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검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날 이마트 본사에서는 ‘이마트 PL 컨벤션’이 열렸다. 이마트 임원들이 이 회사가 곧 출시할 PL상품에 대해 해당 상품기획자(MD)의 설명을 직접 듣고 상품성을 점검하는 자리다. 컨벤션 회장 옆에는 즉석 식품 조리를 위한 주방도 마련됐다. 올해 1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열리는 행사다. 정 부회장과 최병렬 이마트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이 참석한다.

◆ 고객 눈높이에서 검증

기자는 정 부회장과 동행하며 컨벤션을 돌아봤다. 간장맛 양념 치킨은 정 부회장이 이날 처음 점검한 상품이다. 처음부터 ‘간간한’ 지적이 나온 셈이다. 정 부회장은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약속 시간보다 2시간쯤 뒤에 와야 제대로 볼 수 있겠다”고 농담을 던졌다. 장내에 잠시 웃음이 번졌지만 곧바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날 컨벤션에선 110여 개 품목이 소개됐다. 중소 협력업체와 이마트가 함께 기획한 제품이 70% 이상이었다. 기존 제품 가운데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포장을 바꿔 차별화한 제품도 같이 전시됐다.

정 부회장은 2시간 동안 자장면이나 어묵 같은 즉석 조리 식품을 일일이 맛보고, 생활용품을 직접 만져보며 경쟁사 제품이나 이전 제품과의 차이점을 꼼꼼히 따져 물었다. 기자에게 음식을 건네며 의견을 묻기도 했다. 그는 “컨벤션에 나올 정도면 자체적으로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통과한 상품”이라며 “대부분 품질이 괜찮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유기농 음용 식초’를 맛본 정 부회장은 그 자리에서 “맛이 없

다”며 담당자에게 제품 보완을 지시했다. 정 부회장은 “유기농 제품이라고 맛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은 버리라”며 “몸에 좋아도 맛이 없으면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가량 이마트 품질혁신팀의 ‘검증’을 거친 제품이지만 이렇게 최고경영자(CEO)의 까다로운 눈썰미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 “중소기업 제조 PL상품 확대”

대기업과 함께 기획한 제품들은 가격 경쟁력에 신경을 썼다. 예를 들어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는 2개들이 포장을 새로 만들어 날개로 2개 살 때 가격보다 100원 싸게 내놓기로 했다. 롯데제과의 ‘꼬깔콘’은 경쟁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15% 증량해 선보일 예정이다. 최성재 이마트 가공식품담당 상무는 “제조사는 가격을 낮추는 대신 진열 공간을 늘려 판매와 브랜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중략)

정 부회장은 이날 행사 참석에 앞서 문용식 나우콤 대표와 이마트 피자과 관련해 ‘트위터 설전’을 벌였다.

그는 이마트 피자를 포함해 최근 이마트의 PL상품 확대 추세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만드는 PL상품을 늘려나갈 생각이지만 무조건 확장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부회장은 “PL상품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경쟁 업체와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방향으로 가지 않는 PL상품 개발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신세계 그룹의 소유주이자 최고경영자인 정용진 부회장이 계열사인 이마트 본사에 들러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 상품(PL상품) 점검 행사를 치르는 자리에 기자가 동행해 작성한 것이다.

위 기사는 독자들에게 PL제품의 일반적인 제조 및 유통, 판매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보다는 기사내용과 제목 모두 정 부회장의 경영자적 안목

과 자질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어떤 경영자라도 자사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상적인 제품관리 활동을 기자가 동행 취재해 경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대서특필한 것은 신문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신문의 신뢰를 떨어트릴 소지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섹시화보 · 신용카드 등 과대 소개

▲ 2010 - 1277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남 상 군

〈주 문〉

스포츠조선 2010년 12월 2일자 27면 「‘19금 황금비율’ 아찔한 유혹.../김시향 모바일 섹시 화보」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스포츠조선은 위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레이싱모델 겸 텔런트 김시향이 19금 섹시화보를 공개했다.

김시향은 1일 ‘라스트 피에스타’(Last fiesta)란 제목의 섹시 화보를 모바일 서비스로 선보였다.

레이싱모델로 이미 상당수의 팬을 확보하고 있던 김시향은 연기자로 변신해 꾸준히 연기 생활을 이어와 그동안 화보를 공개한 적이 없었다. 김시향은 이번 섹시화보로 오랜만에 황금비의 몸매를 공개했다.

특히 김시향의 이번 화보는 심의에서 19세 이상 관람 등급을 받아 더욱 남성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오랜만에 선보이는 만큼 김시향이 과감한 노출

과 포즈로 섹시 컨셉트를 잘 표현해 팬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장미인애가 연예인 누드 화보집을 출간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것에 이어 김시향이 연예인 화보에 뜨거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화보 관계자는 “몸매로 따지면 김시향을 따라 갈 수 있는 연예인은 몇 안될 것이다. 많은 스타들의 화보 서비스를 준비했지만 김시향의 몸매에 견줄만한 연예인은 거의 없었다. 특히 과감한 노출은 그녀의 몸매를 더욱 빛나게 했다. 기존 화보의 노출 수위는 상대가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시향의 누드에 가까운 섹시화보는 휴대폰을 통해 서비스된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레이싱 모델 겸 텔런트인 김시향이 새로 선보인 ‘라스트 피에스타’라는 제목의 유료 모바일 화보를 소개하는 기사이다.

기사는 <황금 비율의 몸매> <19세 이상 관람 등급을 받아 남성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과감한 노출과 포즈로 섹시 컨셉트를 잘 표현해...> 등 감각적인 문구와 더불어 큼지막한 김시향의 노출 사진을 곁들여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비록 모바일 서비스 업체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하더라도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연예인이나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항(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78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 문〉

일간스포츠 2010년 12월 1일자 16면 「“100% 현미유로 튀긴 닭강정… 입맛 잡았죠”/‘강정이 기가 막혀’ 김홍엽 (주)푸디노 사장」 기사와 제목, 「“바꾸길 잘했죠, 내 추천으로 오픈한 집만 30개”/서대문구 연희점 광태영 사장」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홍엽 사장 인터뷰〉=“앞으로 2~3년 안에 치킨 시장은 닭강정이 주도할 것입니다.”

‘강정이 기가막혀’ 브랜드로 치킨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주)푸디노 김홍엽(50) 사장의 거침없는 주장이다. “기존의 치킨 시장은 이제 포화상태입니다. 차별화 되지 않은 메뉴론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 아이템이 바로 닭강정입니다.” 닭강정은 프라이드 치킨의 바삭한 맛과 강정의 달콤한 맛을 접목시킨 새로운 메뉴이다. 유명한 ‘신포닭강정’처럼 시장통에서 개인적으로 만들어 판 사람은 많지만 프랜차이즈화 한 것은 김 사장이 최초다.(중략)

- 닭강정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템이라는 것도 있지만 역시 맛입니다.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소스를 개발하기 위해 1년여간 고생을 했습니다.(중략)”

-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건강을 위해 100% 현미유로 튀긴 것이 웰빙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우리는 마리 개념이 아닌 중량으로 팝니다.(중략)

- 앞으로의 목표는.

“분명히 우리가 선두주자이지만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업체를 따돌리고 선두를 지키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후략)』

〈곽태영 사장 인터뷰〉=『“매장 크기는 33㎡(10평)이지만 월 매출은 평균 3700~3800만 원 정도 됩니다.”

‘닭강정이 기가 막혀’ 서울 서대문구 연희점 곽태영(47) 사장의 말이다. 홀매장이 아니라 배달만 하는데도 하루 100마리 가량 판다고 한다.

곽 사장은 원래 유명 브랜드의 치킨 체인점 두 곳을 7년 가까이 운영했다. 그렇지만 오븐 구이의 시장이 너무나 경쟁이 심해서 지난 해 4월 지인의 추천을 받아 닭강정으로 갈아탔다. 누구나 좋아하는 닭강정이라는 틈새시장을 노린 것이다. “바꾸기를 정말 잘했죠. 수익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서 오픈한 집이 30개나 되겠습니까.”(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강정이 기가 막혀’ 브랜드로 영업 중인 (주)푸디노라는 특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를 사장 및 영업점 사장 인터뷰 형식을 통해 장점 일변도로 대서특필했다.

기사는 “100% 현미유로 튀긴 닭강정… 입맛 잡았죠”라는 큰 제목부터 광고 카피와 비슷했고, 인터뷰 내용도 홍보성 짙은 문구와 내용으로 일관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혹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89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 문〉

매일경제 2011년 2월 17일자 B7면 「폼나게 굶고 싶다면…체크카드가 있잖아요」 기사의 제목, 東亞日報 2월 22일자 D7면 「기름 한번 넣었더니…백화점에서 쇼핑했다고…포인트가 쏟아지는 ‘착한 카드’ 속속 등장」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매일경제와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매일경제)=『금융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는 대학생. 자신의 이름이 박혀 있는 카드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뿌듯한 생각이 들곤 한다. 아직 신용카드를 만들기는 이르지만, 체크카드를 잘 활용하면 신용카드 못잖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중략)

신한카드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패스-캠퍼스플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금융사와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 대학생들이 각종 금융서비스와 제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구성된 상품이다.(중략)

현대카드는 대학생 특화 체크카드인 현대카드U를 내놓고 있다. 대학생을 위한 실속형 체크카드로 은행계좌 한도만큼 사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U는 이용처에 따라 결제금액의 최고 1%까지 U포인트를 적립해 주며 적립된 U포인트는 GS이숍, CJ몰, 예스24, 리브로 등 포인트뱅크 제휴사의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다. 또 싸이월드에서 도토리로 바꿔서 이용할 수도 있다.(중략)

삼성카드는 대학생에게 유용한 체크카드로 캐시백 체크카드를 추천했다.

이 상품은 사용금액의 최대 8%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별도 연회비 없이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금액 중 최대 8%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쇼핑, 외식, 주유 중에서 본인의 소비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업종별 특화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후략)』

(東亞日報)=『요즘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카드들은 겉으로는 고만고만해 보이지만 저마다 다양한 ‘포인트 혜택’을 강력한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벗어나 각종 공과금, 온라인 민원 서비스 수수료 등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포인트 시장이 커지면서 카드마다 포인트의 특성도 주목받고 있다. 카드사별로 고객에게 포인트를 후하게 쌓아주는 ‘포인트 강자’들을 만나본다.

현대카드의 ‘M3’카드는 종전에 나온 ‘M’카드와 비교할 수 없는 포인트 혜택을 자랑한다. M3카드는 ‘M포인트’ 적립률이 평균 4%로 M카드의 2배다.

특히 이 카드는 자동차를 살 때 힘을 발휘한다. ‘세이프-오토’제도를 활용하면 현대·기아차를 차종에 따라 최대 50만 원 저렴하게 산 뒤에 M3카드를 사용하며 쌓이는 포인트로 일정 기간에 걸쳐 차 구매비용을 댈 수 있다. 활용한 포인트 정도를 차 구입 뒤 36개월 안에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큰 부담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전국 가맹점에서 소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포인트를 받게 돼 있다.(중략)

삼성카드의 ‘삼성 빅앤빅 아멕스 카드’는 해외여행이 잦은 고객에게 포인트를 쏟아내는 카드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와 제휴해 결제 금액의 최고 5%까지 포인트를 준다. 특히 해외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포인트를 더 많이 준다.

연간 사용실적이 많을수록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 600만 원 미만이면 0.5%, 600만 · 1200만 원은 0.75%, 1200만 원 이상이면 1%다. 국내 면세점에서는 적립률이 5배 높아지기도 한다.(중략)

신한카드의 ‘하이포인트 나노’는 특정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고객에게 포인트를 대거 쏜다. 적립률은 최고 사용액의 5%다. 명동 청담동 강남

역 신사동 등 카드를 자주 긁는 주요 거리를 한 곳만 택해 해당 거리에서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받는다. 또 자기가 자주 이용하는 업종을 고르면 전월의 사용액에 따라 해당 가맹점에서 적립률을 최고 5%로 높여주기도 한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는 위 기사에서 대학 신입생들의 신분에 어울리는 카드라며 체크카드를 추천하고, 여러 카드사의 체크카드 특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폼나게 긁고 싶다면…체크카드가 있잖아요’라는 제목은 기사 본문에도 없는 내용이며 카드업체의 매출신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홍보성 제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대학생은 부모로부터 학비와 용돈을 타 쓰는 게 현실이고, 스스로 학비와 용돈을 조달하는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카드를 이용해 소비생활을 활발하게 할 처지는 못 된다. 이렇듯 독립적인 경제주체가 되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 ‘폼나게 긁고 싶다면…’이라는 식의 제목으로 소비를 촉구하는 것은 대학생 개인이나 건전한 사회기풍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東亞日報 역시 카드업체들의 판촉 홍보 전략에 부응해 기사 본문에도 없는 내용을 제목으로 뽑았다. 이는 카드업체의 매출신장을 돕기 위한 홍보성 제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③항(사회적 책임),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메리트 위주 부동산 분양기사 등

▲ 2010 - 1108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주 문〉

중도일보 2010년 4월 1일자 8면 「도안 알짜배기 상가 ‘풍성’/9일째 32호 신규공급… 연말까지 당진 등 91호 분양」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중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LH대전충남지역본부가 올 연말까지 91호의 ‘알짜배기 상가’를 분양한다.

31일 LH에 따르면 오는 9일째 도안신도시 4블록상가 12호, 6블록상가 12호, 10블록상가 8호 등 모두 32호의 상가가 신규로 공급될 예정이다.

도안지구는 4블록은 1216세대, 6블록은 854세대, 10블록은 1647세대의 대형단지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또 도안신도시에는 새롭게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로 모두 20개 블록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상당한 인기가 기대되는 곳이다.

도안신도시에 이어서 오는 5월에는 당진채운(549세대) 5호, 태안평천(531세대) 5호가 예정돼 있다.

이어서 오는 7월에는 홍성남장(659세대) 8호, 10월에는 대전석촌2(1025세대) 19호가 계획돼 있다.

도안신도시 12블록(1056세대) 11호, 대전목동(804세대) 8호, 서산대산(284세대) 3호 등은 오는 11월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LH의 단지내 상가는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분양주체가 공기업이라는 높은 신뢰도, 소비층 확보 등 장점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상가의 신청자격은 제한이 없고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

며 1인 입찰도 유효하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LH대전충남지역본부가 도안신도시 등에 상가를 분양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리드 부분의 “...‘알짜배기 상가’를 분양한다.”를 비롯해 “도안지구는... 대형단지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도안신도시는 새롭게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로 모두 20개 블록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상당한 인기가 기대되는 곳이다.” 등에서 보듯이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도안지구에 분양되는 상가가 ‘알짜배기 상가’라고 단정하고, 도안지구의 인기가 기대되고,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적고 있다.

마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의 홍보문구를 연상케 하는 이러한 기술은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사실보도의 수준을 넘어 공기업이라고는 하나 특정 기업의 상가 분양을 도우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항(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31 신문윤리강령 위반

- 1. 경인일보 발행인 송 광 석
- 2. 大田日報 발행인 신 수 용
- 3.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 4. 경기일보 발행인 이 현 락

〈주 문〉

경인일보 2010년 4월 30일자 8면 「車 사라진 아파트 茶 욕심나는 풍경/부천 소사뉴타운 푸르지오 741가구 5월초 일반 분양」 제하의 기사, 大田日報 5월 7일자 11면 「분양가 최대 1억 9000만원 할인… 40층 높이 대전 최고층/유성 ‘GS자이’ 샘플하우스 오픈」 제하의 기사, 5월 14일자 14면 「웅장하고 세련된 외관 · 파격적 혜택… 수요 · 투자자 ‘유혹’/‘유성 GS자이’ 주상복합아파트 주목」 제하의 기사 외 1건, 중도일보 5월 10일자 11면 「LH 선화 Humansia 센트럴뷰 특집/자연+건강+문화 ‘3박자 프리미엄’/아파트가 아트가 된다」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5월 13일자 9면 「자연 그대로… 청계산 품에 안긴 ‘안식처’/판교 테라스 하우스 ‘월든 힐스’ 이달부터 분양」 제하의 기사 외 1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적시 기사들은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와 테라스하우스를 소개하면서 분양 안내문이나 광고 등에 담을 내용까지 전하는 등 해당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 또 기사에는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조감도를 함께 게재하였다.

이러한 기사 내용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특정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검증 없이 홍보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전일보 2010년 5월 7일자 11면〉



〈경인일보 2010년 4월 30일자 9면〉

-새차 시승기

▲ 2011 - 1019 신문윤리강령 위반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주 문>

머니투데이 2011년 1월 8일자 12면 「시승기/아우디 ‘신형 A8’/22단계 시트 조절…요트 탄 듯 편안한 주행», 「시승기/폭스바겐 ‘CC 2.0 TDI’/3000cc급 성능에 중형차 최고 수준 연비」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우디 ‘신형 A8’〉=『“주행능력은 기대이상이었다. 가속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부드러우면서도 빠른 순발력으로 반응했다. 엔진의 힘과 가속력도 좋았지만, 변속충격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신형 A8을 주행해 본 첫 인상이다. 아우디코리아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신형 ‘A8’은 4163cc 4륜구동 콰트로 시스템을 장착, 371마력의 출력과 45.4kg.m의 토크를 발휘하는 최고급 세단이다.(중략)

전반적인 디자인은 아우디 ‘A8’ 고유의 DNA는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세부적인 세련됨이 돋보인다.(중략)

실내에 들어서면 마치 요트에 타고 있는듯 한 느낌의 대시보드 라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요트의 추력레버와 같은 형태인 신형 변속레버는 주행모드 선택에 사용하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다.(중략)

새로 개발된 뉴 A8의 앞좌석은 비행기 일등석만큼이나 편안하다. 콤포트 시트는 22단계로 조절할 수 있으며, 히팅(Heating)외에 3단계 쿨링(Cooling) 기능도 제공한다.(후략)』

〈폭스바겐 ‘CC 2.0 TDI’〉=『(전략)…2011년형 모델부터 기존 4인승에서 5인승 차로 변신한 폭스바겐 ‘CC’는 좌석 하나 늘린 것만으로도 합격점을 줄 만 하다. 디자인이나 성능, 연비는 이미 이전부터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이다.(중략)

CC의 최대토크는 35.7kg.m로 배기량 3000cc급 가솔린차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또 노면의 상황과 주행상태에 따라 표준과 스포츠, 콤포트 3단계 주행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폭스바겐차를 시승할 때마다 느끼지만 연비는 국내에서 판매중인 수입차중 최고봉이다. 연료게이지 바늘이 떨어지는 걸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2000cc급 중형차로 리터당 16.2Km의 공인 연비도 높은 편이지만 고속도로 주행연비는 이보다 더 높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특정 외제차의 시승기로, 감성적인 제목에다 홍보성 짙은 문구를 곁들여 문제점 지적은 전혀 없이 장점 일변도로 소개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은행 · 카드사의 새 상품

▲ 2010 - 118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2.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 문>

朝鮮日報 2010년 9월 6일자 B7면 「귀성길서 신권 교환 · 최고 100만원 캐

시백.../은행·카드사 한가위 선물 평~평」기사의 제목, 東亞日報 9월 10일자 B9면 「‘위험’ 노출된 우리아이... “어린이보험 이젠 필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朝鮮日報와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朝鮮日報)=『추석 연휴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선물이나 차례상 등을 준비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지갑이 얇아지기 쉽다. 하지만 돈을 쓸 때 쓰더라도 꼼꼼히 살펴보면 절약할 수 있는 길은 있다. 특히 은행과 신용카드사, 보험사들이 추석을 맞아 내놓은 이벤트를 잘 이용하면 큰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상품권이나 캐시백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쓰고 혜택 챙기세요

하나SK카드사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결제액의 10%를 상품권으로 증정(50만~100만원 한도)한다. 오는 6일부터 21일까지 현대백화점에서 1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최고 2만원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KB카드는 자사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국민은행 홈페이지와 ARS(1599-6660)를 통해 5만원 이상 카드 사용전표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총 2만명에게 이용금액의 10%, 최고 100만원 한도로 현금을 돌려준다. KB카드는 또 이달 말까지 G마켓과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롯데닷컴, AK몰, 디앤샵 등 주요 인터넷 쇼핑몰 이용 고객에게 지정된 행사기간 동안 할인쿠폰, 할인, 현금 캐시백 등을 통해 5~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롯데마트에서 오는 30일까지 5만원 이상 현대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 현대오일뱅크 3000원 주유 할인권을 증정한다. 또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서 현대카드로 결제한 모든 고객에게 롯데마트 5000원 할인권과 교환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쿠폰을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오는 6일부터 21일까지 이마트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구입할 때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대별로 최대 100만원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준다. 삼성카드는 또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홈플러스에서, 9일부터 21일까지 롯데마트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각각 홈플러스 상품권과 롯데카드 상품권을 증정한다. 신한카드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신한 후불하이패스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면 최대 1만원까지 결제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하락)』

(東亞日報)=『“이제 2학기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아이 어린이보험 한번 알아볼까?”

각종 질병부터 재해, 학교폭력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을 둘러싼 위험에 항상 고민이 많은 부모들. 이런 부모들에게 적합한 상품이 바로 어린이보험이다.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데다 교육비 마련도 도와줘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더 튼튼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보살피 주기 때문이다.

◆ 아이 건강과 미래 동시 보장

신한생명의 ‘아이사랑 보험’은 생명보험사 어린이보험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이다. 4월 현재 가입 건수가 무려 100만 건을 넘어섰다. 최고 30세까지이던 기존 보장기간을 80세까지로 늘려 가입 한 번으로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 백혈병, 골수암 등에 1억 원을 보장한다. 등하굣길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보장을 강화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으면 2억 원을 지급한다. 또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 질환과 콜레라, 장티푸스 등 주요 법정 전염병도 보장하며 유괴나 납치 사고 때는 300만 원의 위로금을 준다.

ING생명의 ‘우리아이 꿈이 크는 변액유니버설 보험’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한 보장플랜이 기본이다. 여기에 안정적인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교육플랜, 성인이 된 후 결혼 등 독립을 위해 필요한 독립플랜이 추가된다. 교육플랜과 독립플랜을 선택한 뒤 부모가 숨지면 교육과 독립 자금을 지급한다.

동양생명은 15세부터 25세까지 가입 가능한 청소년 전용 특화상품 ‘수호천사 차세대 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15세 남자가 보험 가입금액 1억 원으로 20년 동안 납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9만1000원이다. 기존 ‘수호천사 VUL 종신보험’의 보험료 9만5000원보다 약 5% 저렴하다. 여기에 어린이보험 계약자 할인 3%와 고액 보험료 할인 3%를 추가로 받으면 보험료는 8만554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 각종 교육 관련 서비스는 ‘덤’

홍국화재는 위험 보장뿐 아니라 최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무료 영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 플러스 사랑보험’을 내놓았다. 소아 백혈병 등 중대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으며 4세(생후 42개월) 미만의 가입 고객에게는 ‘더 플러스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컨설팅을 무료로 해준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의 재능을 조기에 진단하고 그에 맞는 교육 방향을 제시해 주는 통합 창의성 검사 프로그램으로 일대일 맞춤형 교육컨설팅기관인 ‘한국메사’와 제휴해 제공한다. 또 미국 내 교사들로부터 A+ 등급을 받은 영어교육 콘텐츠 ‘메사 영어애니메이션 창작동화’ CD를 준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갖가지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면서 여러 금융회사들의 추석맞이 이벤트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 같은 금융사들의 이벤트는 사실 이익극대화를 위한 영업전략일 뿐이다. 그런데 제목을 보면 기사내용보다 앞질러 ‘은행 · 카드사 한가위 선물 평~평’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금융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대가 없이 제공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제목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려는 금융사들의 영업전략에 보조를 맞추어 소비를 부추기는 홍보성 표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東亞日報은 요즘 어린이들이 질병, 재해, 학교폭력 등 여러 위험에 둘러싸

여 있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보험사들이 내놓은 어린이 보험 상품들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그러나 제목은 기사 내용에서 벗어나 “어린이 보험 이젠 필수”라고 달았다. 이는 기사의 내용과는 다른 과장된 표현으로서 독자들에게 어린이 보험상품을 누구나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의 제목은 독자들에게 어린이 보험상품을 구입할 것을 강력히 권유하는 홍보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두 신문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일반적 대학홍보

▲ 2011 - 1056 신문윤리강령 위반

충북일보 발행인 변 근 원

〈주 문〉

충북일보 2011년 2월 7일자 7면 「‘취업’은 충청대학의 DNA」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충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고사업 무더기 선정

충청대학은 각종 국고지원 사업에서 주변 경쟁대학으로부터 ‘싹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무더기로 선정되며 대학의 힘을 보여 주었다.(중략)

3년 연속 교육역량 우수 대학

충청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0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2개 사업인 교육역량 우수대학과 대학대표브랜드사업에 모두 선정돼 국고 지원금 46억 6800만 원을 지원받았다.(중략)

학생 만족도 최우수 대학

지난 1983년 개교해 지난 27년간 4만 3000여 명의 산업인력을 배출한 충청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등 작금의 어려운 시기를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에 대한 서비스 강화로 헤쳐 나가고 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북일보는 충청대학을 ‘3년 연속 교육역량 우수 대학’ ‘학생 만족도 최우수 대학’ 등 소제목과 본문에 최상급 표현을 남발하며 한 개 면 전체를 할애하여 장점 일색으로 소개하였다.

기사 말미에는 ‘취업을 생각한다면 충청대학입니다’ 제하의 돌출광고 형식을 취한 정규 신입생과 직장인 무시험 및 4년제 전공심화과정 모집 안내문을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를 곁들여 전면광고 이상의 홍보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검증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특정 대학이 알리고 싶어 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 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반한 다른 기사들〉

(www.ikpec.or.kr 참조)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0-1091	朝鮮日報	3. 30.외	조선경제 LIFE 섹션 외	주 의
	東亞日報	3. 31.외	Health & Beauty/병원특집 외	〃
	한국경제	〃	Luxury Fashion 외	〃
	헤럴드경제	4. 8.외	파워 코리아 외	〃
	중앙일보	4. 13.외	Level Up/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외	〃
	매일경제	4. 14.	MBA 외	〃
	문화일보	4. 15.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
2010-1092	서울경제	4. 16.	2010 대한민국 경영혁신 대상	〃
	영남일보	4. 1.	저렴한 그린피... ‘회원제’ 부럽.../경주 보문골프클럽 외	주 의
2010-1103	머니투데이	4. 13.	동아제약/가그린/양치질로 못 잡는 입속세균 제거 외	주 의
	한국경제	4. 14.	중년 이후 허리통증 ‘척추관협착증’.../순포병원 척추...	〃
2010-1104	매일경제	4. 12.	한쪽의 수채화 그곳에서 날리는 샷/중국 난징 백마산...	주 의
	한국경제	4. 13.	골프3스키장 · 호텔... 명품 리조트가 한 곳에/...	〃
2010-1105	일간스포츠	3. 31.	프랜차이즈 CEO 아띠꼬꼬.../간판 교체 비용으로...	주 의
	스포츠서울	4. 17.	중소 强 기업 CEO 열전/‘처갓집 양념치킨’ 한국153...	〃
2010-1106	인천신문	4. 2.	만수동 대청도 횃집/가격 · 크기 · 맛/못난 꽃게도 매력...	주 의
	전북중앙신문	〃	전주시 중화산동 ‘황금소곱창’/지글지글 입안에서 톡/...	〃
2010-1107	大邱日報	4. 1.	봄, 폐제베 이스트CC 혜택 ‘우수수’	주 의
	경북매일신문	4. 2.	“봄바람 맞으며 그린 산책 나서볼까”/폐제베 이스트...	〃
2010-1108	중도일보	4. 1.	도안 알짜배기 상가 ‘풍성’/9일째 32호 신규공급...	주 의
2010-1118	중앙일보	4. 23.외	부동산 외	주 의
	朝鮮日報	4. 27.외	조선경제 LIFE 섹션/W 외	〃
	한겨레	4. 28.	기업 비전 2020	〃
	東亞日報	4. 30.외	Home & Dream 외	〃
	서울경제	〃	2010 그레이트 브랜드 페어 외	〃
	한국경제	5. 4.외	Golf 외	〃
2010-1119	매일경제	5. 11.외	Car & 외	〃
	국제신문	4. 29.	금융산업 특별 섹션	주 의
2010-1127	헤럴드경제	4. 27.외	유통 외	주 의
	한겨레	4. 30.	식음료 특집	〃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0-1127	머니투데이	4. 30.외	5월은 '선물의 달' 외	주 의
	문화일보	5. 4.외	내일 어린이날/선물용 금융상품 '눈길' 외	"
	한국일보	5. 4.	선물 특집	"
	국민일보	5. 13.	식음료 특집	"
	서울경제	5. 14.	식음료 · 홈쇼핑 프리미엄이 대세	"
2010-1128	東亞日報	4. 28.	세련된 외관…탁 트인 조망…“일할 맛 나겠네” 외	주 의
	한겨레	4. 29.	폴크스바겐 '골프 GTD' 타보니/기분좋은 배기음…	"
2010-1129	한국경제	4. 30.	하이브리드 SUV 이렇게 조용할 수가…/렉서스 RX450h 외	주 의
	머니투데이	5. 1.	캐딜락 'SRX'/날렵한 스타일, 최적의 승차감… 외	"
	매일경제	5. 11.	최고를 향한 열정 미니 컨버터블 JCW/192마력 엔진… 외	"
	東亞日報	5. 13.	도요타 리콜과동에도 끄떡…/오랜 벗 같은 '캠리의 힘'	"
	서울경제	"	미쓰비시 아웃랜더/고속주행 탁월 정숙성도 뛰어나	"
2010-1130	매일경제	5. 10.외	자연친화적인 코스에서 흥미…/중국 선양 안산CC 외	주 의
2010-1131	경인일보	4. 30.	車 사라진 아파트 茶 육십나는 풍경/부천 소사뉴타운…	주 의
	大田日報	5. 7.외	분양가 최대 1억 9000만원 할인… 40층 높이 대전… 외	"
	중도일보	5. 10.	LH 선화 Humansia 센트럴뷰 특집/자연+건강+문화…	"
	경기일보	5. 13.	자연 그대로… 청계산 품에 안긴 '안식처'/판교 테라스…	"
2010-1132	毎日新聞	5. 10.	메디컬 프린터/대구 중앙이비인후과 박재울 원장/…	주 의
	중도일보	5. 13.	뒀다 우리지역 스타의사/선치과병원 이동근 원장/…	"
2010-1140	중앙일보	5. 20.외	부동산 외	주 의
	한국경제	5. 26.외	Better Life 외	"
	매일경제	5. 26.	맞춤형 펀드가 뜬다 외	"
	東亞日報	5. 27.외	Home & Dream 외	"
	한국일보	6. 9.	한국 경제 이끄는 파워리더/위기에 강했다 '큰 바위 경영'	"
	한겨레	6. 17.	한겨레 특집/충청권 여행	"
2010-1141	부산일보	5. 28.외	제15회 바다의날 '해양특집'/21세기 해양강국을 연다 외	주 의
	국제신문	5. 31.	블루오션 그린부산/국제신문 해양특집	"
	영남일보	6. 9.	특집 부동산	"
2010-1142	朝鮮日報	5. 20.	분양현장을 가다/죽전 보정역 한화 꿈에 그린	주 의
	한국경제	5. 31.	Travel/옥색바다 위에 뜬 '즐거운 썬표'/… 외	"
	머니투데이	6. 8.외	국가대표 전략상품 외	"
	매일경제	6. 14.	크루즈/쉽고 편하게 즐기는 선상 여행/한 · 중 · 일 크루즈	"
	서울경제	6. 17.	여름을 Cool하게	"
	중앙일보	"	부동산	"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0-1143	매일경제	5. 31.외	새롭게 주목받는 골프 명소 '선양'/수려한 산세… 외	주 의
2010-1144	朝鮮日報	5. 26.	시승기 BMW 뉴X5/'주행 IQ' 높아지고 '심장'은 더 강해져	주 의
	한국경제	5. 28.	휘발유車的 정숙성 · 부드러운 승차…/뉴 아웃랜더2.4 외	"
	머니투데이	6. 5.	BMW 미니 '캠든'/급커브 틀면 “와우!” 음성안내 미션…외	"
	서울경제	6. 7.	명차 나들이/폭스바겐 2010년 파사트/풀가속 해도…	"
	매일경제	6. 8.	점보제트기를 끄는 강력한 힘에 스포츠카의 날렵함… 외	"
2010-1145	경향신문	6. 14.	'K5' 시승기/실물이 더 멋진 외양/승차감도 부드러워	"
	충청투데이	5. 20.외	부동산/GS건설 유성 자이/계룡산 · 유성천이 한눈… 외	주 의
	경남신문	6. 8.	부동산/제주 라온프라이빗타운/골프 · 승마 · 요트…	"
2010-1146	인천신문	6. 11.	맛기행 멋기행/정통 수제 버거 · 피자 전문점…	주 의
2010-1165	경향신문	7. 9.	특집/2010 대전 · 충청 방문의 해	주 의
	한겨레	7. 21.	한겨레 특집/부동산	"
	朝鮮日報	7. 23.외	조선경제 Real Estate 외	"
	한국경제	"	BIZ Insight 외	"
	중앙일보	7. 27.외	안전경영 외	"
	서울경제	"	특집/'웅도 경북'의 飛翔 외	"
	東亞日報	7. 29.	Money & Life	"
	한국일보	"	2010 대한민국 고객만족 서비스 대상	"
2010-1166	東亞日報	7. 21.	Home & Dream	주 의
	헤럴드경제	7. 22.	휴가철 금융상품	"
	경향신문	7. 22.	바캉스 특집	"
	한겨레	7. 23.	"	"
	머니투데이	7. 23.	주요기업 하반기 전략	"
	매일경제	7. 26.	해외골프 외	"
	파이낸셜뉴스	7. 27.외	기획 외	"
2010-1167	한국경제	7. 15.	조용하고 안전하고… '팔방미인' SUV/렉서스RX450h	주 의
	문화일보	8. 4.	'올 뉴 인퍼니티M' 시승기/기존보다 넓어진 실내/고속…	"
	서울경제	8. 9.	시승기 재규어 뉴 XK쿠페/보닛의 곡선 · 루프라인…	"
2010-1168	스포츠조선	7. 8.	(주)디온지씨 '디온 골프타임' 새바람/스크린골프…	주 의
	일간스포츠	7. 16.	트랜지지방 쏙 빼니 웰빙 오븐…/본스치킨 구기형사장	"
	매일경제	8. 9.	천혜의 자연에서 날리는 호쾌한 샷/태국 깐짜나부리…	"
2010-1169	光州日報	7. 22.	시원한 물 폭탄… 짜릿한 한밤 사파리/에버랜드의…	주 의
	大田日報	7. 30.외	입지 좋은 '수익형 오피스텔' 어때요?/… 외	"
	인천신문	7. 30.	30년 전통 · 업그레이드 육수… “앗! 이맛이야”	"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0-1185	朝鮮日報	9. 6.	귀성길서 신권 교환 · 최고 100만원 캐시백…	주 의
	東亞日報	9. 10.	‘위험’ 노출된 우리아이… “어린이보험 이젠 필수”	”
2010-1188	중앙일보	8. 19.외	대한민국 경제수도 인천 외	주 의
	매일경제	8. 24.외	IT & 외	”
	朝鮮日報	8. 25.외	조선경제 Real Estate 외	”
	한국경제	8. 25.외	Better Life/스마트한 名品 자산관리 외	”
	東亞日報	8. 30.외	관광허브 강원도 외	”
	한겨레	8. 31.	한겨레 특집/저탄소 녹색경영	”
2010-1189	한국경제	8. 24.	가을 화장품	주 의
	머니투데이	8. 24.외	통합형 보험이 뜬다 외	”
	중앙일보	8. 25.	부동산 분양	”
	파이낸셜뉴스	8. 25.외	공기업에도 녹색경영 바람 외	”
	朝鮮日報	8. 30.외	감성놀이교육 외	”
	국민일보	8. 31.	글로벌 톱 브랜드	”
	문화일보	8. 31.외	한국건설, 재도약의 신화를 쓴다 외	”
	한국일보	9. 10.	한가위 선물 특집	”
	경향신문	9. 14.	”	”
2010-1190	朝鮮日報	8. 23.	건강 · 음식 · 레저… ‘치유관광’ 전문인 길러낸다/… 외	주 의
2010-1191	스포츠조선	8. 31.	내년 9월 개장 클럽모우 골프&리조트 ‘미리보기’/… 외	주 의
	한국경제	”	당뇨 · 암에 탁월한 효능…홍삼으로 순우리건강/… 외	”
2010-1192	한국경제	8. 23.	산과 바다가 한눈에… 한여름에도 쿨~샷/…	주 의
	매일경제	8. 30.	대자연 속에서 맛보는 장쾌한 샷/태국 다이너스티GC	”
	머니투데이	9. 10.	한라산이 ‘굿 샷’ 외치는 듯…제주 자연…/해비치CC …	”
2010-1193	세계일보	8. 17.	주행성능 · 가속음 질주본능 자극… 부드러운 외관권/…	주 의
	머니투데이	8. 21.	시승기/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강력한 엔진/…	”
	한겨레	9. 2.	폴크스바겐 ‘뉴 페이스’ 타보니/시속 220km 달려도 꾀끗/…	”
2010-1194	경인일보	9. 3.	비즈니스 중심 신개념 필드…일도 여가도 ‘굿샷’/…	주 의
	중도일보	9. 3.외	LH 스마트뷰/‘똑똑한 아파트’ 원도심 랜드마크 꿈꾼다 외	”
	중부일보	9. 7.	파주 롯데아웃렛/럭셔리 쇼핑족 내년 여름을 기다린다	”
	강원도민일보	9. 11.	춘천 라테나골프클럽/천혜 경관 · 적당한 난이도…	”
	경기일보	9. 14.	수원 쉬즈메디 산부인과 · 소아과/출산부터 몸조리지…	”
2010-1203	중앙일보	9. 20.외	이젠 동반성장 시대 외	주 의
	朝鮮日報	9. 27.외	조선경제 특집/사랑받는 기업 외	”
	東亞日報	9. 29.외	Welcome to BUSAN 외	”
	한국경제	9. 30.외	Biz & CEO 외	”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0-1203	매일경제	10. 6.외	10월 분양아파트 외	주 의
	파이낸셜뉴스	10. 6.	Golf is Life	”
	헤럴드경제	10. 8.	비전코리아	”
	서울경제	10. 13.	G20, 재계가 뚝다	”
	경향신문	10. 15.	경향신문 금융특집/유동성 시대/알짜 재테크	”
2010-1211	중앙일보	9. 29.	역까지 5분, 소사뉴타운 알짜 중소형/… 외	주 의
	서울신문	9. 30.	상생경영 이젠 기업생존 좌우할 ‘화두’/…	”
	한국일보	”	피카소 그림과 모차르트 명곡을 동시에/도서출판 아람	”
	파이낸셜뉴스	9. 30.외	복리 단골우대… ‘+a를 찾아라 외	”
	머니투데이	”	우리집 가구 바뀌을까 외	주 의
	헤럴드경제	9. 30.	증권사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외	”
	서울경제	10. 5.	증권사 대표상품	”
2010-1212	매일경제	10. 7.	상품장터	”
	스포츠조선	9. 17.	식탁에서 먹던 감자‘칩’ 고소하네!/농심 ‘수미칩’ 가공용…	주 의
2010-1213	일간스포츠	9. 28.	토종감자로 만든 수미칩 자꾸 손이 가네/…	”
2010-1213	매일경제	10. 11.외	태평양 향해 날리는 호쾌하고 시원한 샷 외	경 고
2010-1214	서울경제	9. 20.	총 20개 스피커 등 오디오부터 차별화/화려한 인테…	주 의
	매일경제	10. 5.	럭셔리 세단의 진화/충격 흡수 탁월하고 변속…	”
	중앙일보	10. 7.	차체 가벼워 코너링 일품…실내는 호화 요트 분위기/…	”
	머니투데이	10. 9.	오픈카 탄듯 ‘파노라마 선루프’/세단을 탄 듯…	”
	문화일보	10. 13.	렉서스 하이브리드카 ‘CT200h’ 파리지 직접 타보니…	”
2010-1215	국제신문	10. 1.	부 · 울 · 경 골프장들 긴장하라…우리가 새로운 명문 골프장	주 의
2010-1216	강원도민일보	10. 2.외	검은 모래 · 탄광… 폐광지서 즐기는 이색 골프 외	”
2010-1216	영남일보	10. 6.	‘대곡역 화성파트드림워드’/“주목받는 이유가 있었네”	주 의
2010-1217	충청투데이	10. 13.	저렴한 분양가는 기본 탁월한 주거환경까지/…	”
2010-1217	중부일보	9. 30.	내고장 기업/극소형 스프링 개발 · 생산 (주)스피코/… 외	주 의
2010-1218	경기일보	10. 15.	“넌텐도 · 소니 게 샀거라” 게임기 세계시장 도전장/… 외	”
2010-1218	충청투데이	10. 14.	지역 거점병원 넘어 중부권 명문병원 도약/하나병원	주 의
2010-1236	東亞日報	10. 22.외	바이오 코리아 외	경 고
	중앙일보	”	가을 속으로 외	”
	朝鮮日報	10. 25.외	한국 MBA 가는 길 외	”
	한국경제	10. 28.외	Special/서산 · 당진~군산~목포 ‘서남권 경제벨트’ 뜬다 외	”
	한국일보	11. 5.	대한민국 New Heart 경기 · 인천/GTX	”
	매일경제	11. 10.외	아파트형 공장 외	”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0-1237	大田日報	11. 9.	에듀캐트/대전 · 충남 자사 · 자공고 · 자율학교 입학...외	주 의
2010-1238	매일경제	11. 8.	올 겨울 주목할 하이브리드형 클럽/태국 춘부리...	경 고
2010-1239	매일경제	11. 8.외	TOUR WORLD 외	주 의
2010-1240	스포츠조선	11. 3.	‘럭셔리 풀빌라’서 럭셔리 휴양... 남국의 유혹...	주 의
	머니투데이	11. 6.	오~경치 보다 맛! 뒤편.../말레이시아 플라이스프링스...	”
2010-1241	강원도민일보	10. 23.외	천혜 자원 그대로 살려 절제된.../홍천 비발디파크CC 외	주 의
	경기일보	11. 5.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
	한라일보	”	한라산 단풍 · 설경 한폭의 그림... 탄성 저절로/...	”
2010-1242	머니투데이	10. 22.	‘겨울 준비’ 필수 아이템 외	경 고
	경향신문	”	헬스/글로벌 한국의료	”
	파이낸셜뉴스	10. 27.	기획	”
	東亞日報	11. 10.	Health & Beauty	”
2010-1243	東亞日報	11. 1.	‘이마트 PL상품’ 매달 검증하는 정용진 신세계부회장/...	주 의
2010-1244	한국일보	10. 26.	렉서스 IS F, 첫인상은 고급 세단...시동걸자 야성 폭발	주 의
	서울경제	10. 28.	경제성 · 운전의 즐거움.../BMW 액티브 하이브리드	”
	머니투데이	10. 30.	질주 본능 깨어나다/시승기 메르세데스-벤츠...	”
	매일경제	11. 2.	볼보 V60/스포츠 쿠페 감성의 파격적 디자인 왜건/... 외	”
	세계일보	”	주행 때 소음 적고 볼륨감 있는 외관 돋보여/...	”
2010-1245	중앙일보	11. 9.	세단의 안정감에 날렵한 쿠페형 외관... 게다가 힘까지...	”
	경인일보	10. 29.외	중소형에서 누리는 ‘랜드마크의 특권’/대우건설... 외	주 의
2010-1264	大田日報	10. 29.	LH아파트 실속... ‘생활에 플러스’ 알짜단지 노려라/... 외	”
	매일경제	11. 24.	카드 한장 들고 스키장 GO!	주 의
2010-1272	東亞日報	11. 25.	‘산타클로스 카드’... 음식점, 쇼핑물, 백화점, 할인...	”
	東亞日報	11. 18.외	Home & Dream 외	경 고
	중앙일보	”	부동산 외	”
	朝鮮日報	”	조선경제 AUTO 외	”
	한국경제	”	Ubiquitous Life 외	”
	한겨레	11. 24.	여성친화 경영	”
	서울경제	11. 25.외	연말 분양시장, 알짜단지 몰려온다 외	”
	한국일보	11. 25.	동남 광역권 시대	”
	매일경제	12. 1.외	내년 유망 증권상품 외	”
2010-1273	헤럴드경제	11. 24.외	그린 주거문화 大賞 외	주 의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0-1274	매일경제	11. 29.	TOUR WORLD	주 의
2010-1275	東亞日報	11. 29.외	Economy+ 住테크 & 地테크 외	경 고
	매일경제	11. 18.외	아이언 외	”
	머니투데이	”	든든한 보험 따뜻한 겨울 외	”
	헤럴드경제	11. 19.외	건강한 겨울나기 외	”
	한국경제	11. 23.	동남권 광역경제 시대	”
	파이낸셜뉴스	11. 24.외	기획/연말 분양시장 노려라 외	”
	서울경제	11. 29.	신성장 동력 속으로	”
2010-1276	문화일보	12. 3.	기획/생명보험연금	”
	내일신문	11. 25.	금융	주 의
	경향신문	11. 29.외	부동산 특집 외	”
2010-1277	朝鮮日報	12. 6.	겨울방학 학습 프로그램	”
2010-1277	스포츠조선	12. 2.	‘19금 황금비율’ 아찔한 유혹.../김시향 모바일 섹시 화보	주 의
2010-1278	일간스포츠	12. 1.	“100% 현미유로 튀긴 닭강정... 입맛 잡았죠”/... 외	주 의
2010-1279	매일경제	12. 6.	‘봄의 도시’에서 즐기는 라운드/중국 쿤밍	경 고
2010-1280	한국경제	11. 22.	그림 같은 15번 홀.../필리핀 푸에르토 아줄GC	주 의
2010-1281	머니투데이	12. 3.	드넓은 ‘초록바다’ 위로...호쾌한 ‘굿 샷’/지산포레스트CC	”
2010-1281	머니투데이	11. 27.	근육질 몸매 그대로...연비 문제 잡았다/포드 ‘머스탱’	경 고
2010-1282	매일경제	11. 30.	파격적 디자인으로 한층 젊어진.../변속은 더 세밀...	”
2010-1282	중부매일	11. 25.	‘가격 훌쩍’ 살림 장만 하이마트로 가요	주 의
2010-1282	경기일보	11. 26.	“창의력 키우는 장난감... 부모가 더 좋아해요” 외	”
2010-1283	강원도민일보	12. 3.	‘춘천 새 랜드마크’ 온의지구 명품 아파트 온다	주 의
2010-1284	영남일보	12. 3.	뜨끈뜨끈한 온천수에 푸~욱... “겨울에도 스파밸리”	주 의
	大田日報	12. 9.	진주처럼 빛나는 자연 그대로의 섬 ‘휴양의 천국’/...	”
2010-1285	경북매일신문	11. 26.	칠곡 세븐밸리 골프장/세계적 디자이너 설계 환상적인... 외	주 의
	한라일보	12. 3.	세컨샷 주변 투온 저지용 암석원 감상도 묘미/...	”
2011-1017	스포츠서울	1. 17.	전통발효 방식 고집 “효능으로 승부”/동원 F&B 홍삼...	주 의
2011-1018	스포츠조선	1. 12.	서태후의 여름별장서 별미 즐겨볼까/온누리투어/...	주 의
2011-1019	머니투데이	1. 8.	시승기/아우디 ‘신형 A8’/22단계 시트 조절... 외	주 의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1-1020	헤럴드경제	1. 5.	새해 재테크/알짜 분양지	주 의
	매일경제	1. 6.	상품장터	〃
	머니투데이	1. 12.외	2011년 유망펀드 외	〃
2011-1021	문화일보	1. 6.	스키는 '쿨'하게... 할인은 '핫'하게...	주 의
	東亞日報	1. 7.외	에 · 스 · 프 · 레 · 소 · 머 · 신 외	〃
	朝鮮日報	1. 10.외	[기숙학원 탐방] ①성균관에듀 기숙학원을 가다 외	〃
2011-1022	大田日報	1. 6.	에메랄드 빛 고요한 바다...여유 · 낭만이 파도치는 섬...	주 의
	대구신문	1. 10.	팔공산의 온천 명소... "피부병에 탁월"/...	〃
2011-1023	한라일보	1. 7.	절묘한 곳에 해저드 위치 '물 위 골프' 착각/...	주 의
2011-1024	경기신문	1. 7.	주말 미각 공감/③당진 생고기촌/착한 가격에 놀라고...	주 의
	大邱日報	1. 14.	양꼬치 한 점 · 칭따오 맥주 한잔 '명호와'/...	〃
2011-1025	大田日報	1. 17.	웰빙문화 속 자연주의 가구로 주목	주 의
2011-1026	서울경제	1. 5.외	Asset plus/새해 투자전략은 외	주 의
	매일경제	1. 7.외	신년기획 재테크 빅모멘텀 외	〃
	중앙일보	1. 7.	2011 부동산 대해부 섹션 중...레미안 뜯어보기	〃
	朝鮮日報	1. 11.	브랜드가 세상을 바꾼다 섹션	〃
	한국경제	1. 11.외	Ubiquitous Life 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이 닮아간다 외	〃
	한국일보	1. 12.	세계로 비상하는 전남 섹션	〃
	東亞日報	1. 14.	동남권 번영시대 섹션	〃
2011-1027	매일경제	1. 12.	Life & Fun 섹션	주 의
	한국경제	1. 12.외	Better Life 섹션 외	〃
2011-1028	매일경제	1. 3.외	TOUR WORLD 섹션	주 의
2011-1050	머니투데이	1. 27.	오감만족 명품골프/칠 맛 쉼 맛 볼 맛/필리핀 천국...	주 의
	매일경제	1. 31.	아름다운 바다를 향해 날리는 샷/사이판 라오라오 베이/...	〃
2011-1051	스포츠조선	1. 24.	동원그룹, 국민 건강 심봤다/천안에 '100% 태양광 건조'...	주 의
2011-1053	大田日報	1. 24.	육교 엘리베이터 시공능력 '넘버원'/충청시대 강소기업...	주 의
	충청투데이	2. 7.	실용성 · 디자인 · 가격 OK... 블라인드 업계 최강 자리매김/...	〃
2011-1054	大田日報	1. 20.	호주 시드니/미사여구가 필요없다 푸른하늘 · 코발트/...	주 의
	영남일보	1. 28.	우웃빛 온천수에 명절증후군 싸~악~ 아토피 치료...	〃
2011-1055	아시아투데이	1. 21.	전문병원을 찾아서/여성질환 전문 제일병원 김재욱/...	주 의
	인천신문	1. 27.	현대유비스병원 새 도약 꿈꾼다/7월 증축공사 완료...	〃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1-1056	충북일보	2. 7.	'취업'은 충청대학의 DNA	주 의
2011-1057	경기일보	2. 9.	Now Metro/글로벌시티① 교육혁명 승부수	주 의
2011-1058	중앙일보	1. 18.외	2012 새로운 도전/전문분야별 기숙학원 외 섹션	주 의
	東亞日報	1. 26.외	기숙학원 섹션	〃
	朝鮮日報	1. 28.	2012 대입 이제부터다 섹션	〃
2011-1059	서울경제	1. 21.외	2011 삼성 승부수 외 섹션	주 의
	朝鮮日報	1. 31.	글로벌 명문 서강대 섹션	〃
2011-1060	매일경제	1. 19.외	Healht & Life 외 섹션	주 의
	東亞日報	1. 20.외	CAR 외 섹션	〃
	朝鮮日報	〃	조선경제 Real Estate 외 섹션	〃
	중앙일보	1. 21.외	부동산 외 섹션	〃
2011-1061	東亞日報	1. 19.외	Home & Dream 외 섹션	주 의
	朝鮮日報	1. 24.	맛있는 공부 섹션	〃
	중앙일보	1. 26.	비즈플라자 섹션	〃
	헤럴드경제	1. 31.	비전코리아 섹션	〃
2011-1062	매일경제	1. 24.외	TOUR WORLD 섹션	주 의
2011-1063	매일경제	1. 20.	상품장터	주 의
	파이낸셜뉴스	1. 27.	기획/2011분양대전 막 올랐다	〃
2011-1089	매일경제	2. 17.	폼나게 굶고 싶다면... 체크카드가 있잖아요	주 의
	東亞日報	2. 22.	기름 한번 넣었더니... 백화점에서 쇼핑했다고...	〃
2011-1090	머니투데이	3. 5.	풍경은 '파노라마' 코스는 '다이내믹'/푸른 바다 위로...	주 의
	스포츠조선	3. 21.	현빈의 '갈끔한 피부'가 부럽다면...	〃
2011-1091	서울경제	3. 14.	배출가스 줄이고 출력은 높여/짜릿한 가속성...	주 의
	문화일보	3. 16.	역동적 주행에도 정숙... '스포츠 세단' 종결자!/...	〃
2011-1092	한라일보	2. 25.외	美 LPGA대회 챔피언 탄생시킨 '신데렐라홀'/... 외	경 고
	강원도민일보	3. 5.외	그림같은 자연 풍광 위로 펼쳐지는 황홀한 샷/... 외	〃
2011-1093	毎日新聞	3. 9.	코끼리 타고 황금왕국 둘러보고 탁트인 해변에 피로가...	주 의
	大田日報	3. 10.	눈부신 푸른 물결따라 환상 휴양지 펼쳐진다/필리핀 세부	〃
2011-1094	경북매일	2. 25.	'포항연일 에코 코아루' 분양성공 예감	주 의
	부산일보	3. 8.	롯데건설, 부산시장 공략 확대...올해 3천766가구 분양	〃
	경상일보	3. 9.외	뛰어난 입지조건...신평면 설계...3.3㎡당 600만원대... 외	〃
2011-1095	毎日新聞	2. 28.	메디컬 프런티어/늘시원한 항문외과 노성균 원장	주 의
	충청투데이	3. 7.외	"에너지위기, 우리에게는 기회"/충청파워브랜드... 외	〃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1-1095	부산일보	3. 8.외	하이! 우리 브랜드/(주)엘큐어/몸과 마음 치유... 외	주 의
	영남일보	3. 17.	설립 6년만에 '임플란트 국가대표' 도약/...	"
2011-1096	南道日報	3. 4.	"月 2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합니다"/기아차 '에코 캐쉬백'...	주 의
	蔚山每日	"	3월 현대차 사면 이벤트가 '팡팡'/LED TV 등 사은품...	"
2011-1097	경기신문	3. 17.	목조주택의 명가 '아란케빈'/100년을 생각하는 초원 위...	주 의
	기호일보	"	모아저축은행/IMF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40년 고객... 외	"
2011-1098	머니투데이	2. 17.외	'졸업 · 입학' 재테크의 첫걸음 외	주 의
	서울경제	2. 18.	환절기 건강관리	"
	헤럴드경제	2. 18.외	유망투자상품 외	"
	東亞日報	2. 22.	입학 · 신학기	"
	문화일보	2. 22.외	부동산 외	"
	파이낸셜뉴스	"	기획/게임업계 외	"
2011-1099	국민일보	2. 28.	부동산 특집	"
	朝鮮日報	2. 16.외	조선경제 특집/졸업 입학 새출발 외 섹션	주 의
	매일경제	2. 17.외	Best of Best 외 섹션	"
	중앙일보	"	새로운 출발 외 섹션	"
	한국경제	2. 18.외	Special/똑똑한 학습지 활용법 외 섹션	"
	東亞日報	2. 21.외	프라이드 경북 외 섹션	"
	한겨레	2. 23.	모바일 2011 섹션	"
	헤럴드경제	2. 23.외	파워코리아 외 섹션	"
	경향신문	2. 25.	2011 경향 하우징 & 브랜드 페어 섹션	"
	서울경제	2. 25.외	신학기 학습법 외 섹션	"

▲ 2010 - 1113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칸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스포츠칸 2010년 5월 18일자 19면 「만화 ‘꽃발’ 내일부터 시즌2 연재/이번엔 ‘올가미꾼’과 한판 대결」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스포츠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만화만 즐겨보셔도 판돈을 잃진 않으실 겁니다.”

스포츠칸의 연재만화 ‘꽃발’(글 조성황 · 그림 이영석)이 오는 19일부터 시즌 2 ‘올가미꾼’을 선보인다. 도박판에서 벌어지는 인간군상들의 백태를 실감나는 필치로 그려낸 ‘꽃발’은 시즌 1 ‘원초적 게임’과 다른 인물, 다른 줄거리로 새 판을 짠다.

시즌 2의 부제가 된 ‘올가미꾼’은 청부를 받아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모는 사람을 뜻한다. ‘꽃발 시즌2-올가미꾼’은 거대한 배경을 가지고 활동하는 올가미꾼과 맞서는 주인공의 활약을 담았다. 주인공은 오로지 도박판에서 꽃발을 무기로 올가미꾼과 대결을 벌인다.(중략)

조성황 작가는 “이 만화를 즐겨 읽기만 해도 실전에서 70% 이상의 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즌 1에 보내줬던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작품으로 인사드리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스포츠칸이 연재만화 ‘꽃발’의 두 번째 이야기인 시즌 2 ‘올가미꾼’을 다음날부터 싣겠다고 소개하는 사고(社告)성 기사이다.

기사는 “만화만 즐겨 보셔도 판돈을 잃지 않으실 겁니다”라는 리드로 시작

해 “이 만화를 즐겨 읽기만 해도 실전에서 70% 이상의 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성황 작가의 땀땀말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만화 주제가 도박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실전에서 70% 이상의 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작가의 말을 여과 없이 소개한 것은 만화의 흥행에만 집착한 나머지 도박을 부추기는 등 언론의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③항(사회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자 료〉

만화 ‘꽃발’ 내일부터 시즌2 연재
이번엔 ‘올가미꾼’과 한판 대결

“만화만 즐겨보셔도 판돈을 잃진 않으실 겁니다.”
스포츠칸의 연재만화 ‘꽃발’ (글 조성황·그림 이영석)이 오는 19일부터 시즌 2 ‘올가미꾼’을 선보인다. 도박판에서 벌어지는 인간군상들의 백대를 살감하는 필치로 그려낸 ‘꽃발’은 시즌 1 ‘원초적 게임’과 다른 인물, 다른 줄거리로 새 판을 친다.

시즌 2의 부제가 된 ‘올가미꾼’은 청부를 받아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을 흥박박산으로 모는 사람을 뜻한다. ‘꽃발’ 시즌2 - ‘올가미꾼’은 거대한 배경을 가지고 활동하는 올가미꾼과 맞서는 주인공의 활약을 담았다. 주인공은 오로지 도박판에서 꽃발을 무기로 올가미꾼과 대결을 벌인다.

‘꽃발’ 시즌 2는 기존의 주인공들이 모두 새 얼굴로 바뀐다. 남자 주인공으로 강지후가 압류했고, 그와 함께 힘을 합쳐 올가미꾼과 맞서는 여자 주인공으로 하솔미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올가미꾼이자 강지후의 어머니에게 접근해 목숨을 잃게 하는 인물로 모준태가 등장한다. 모준태는 주인공 강지후와 대척 등장으로 설정돼 흥미를 돋울 예정이다.

‘꽃발’ 시즌 2를 집필하는 조성황 작가는 “시즌 2는 꽃발의 실전적인 효용을 볼 수 있는 에피소드를 구성했다”며 새로운 시즌의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조 작가는 “시즌 1 ‘원초적 게임’에선 꽃발도 좋은 꽃발과 나쁜 꽃발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꽃발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했다면 시즌 2 ‘올가미꾼’에서는 이 꽃발이 실전에서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작가는 “시즌 2에 비해 훨씬 부드러워진 그림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작가는 “이 만화를 즐겨 읽기만 해도 실전에서 70% 이상의 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즌 1에 보내줬던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작품으로 인사드리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하영현 기자 azimae@kyunghyang.com

〈스포츠칸 2010년 5월 18일자 19면〉

3. 사회적 책임

-지역감정 조장 우려

▲ 2010 - 1133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일보 발행인 정 정 화

〈주 문〉

경북일보 2010년 6월 8일자 1면 「TK, 한나라당 최대주주 맞나/국회의장·부의장, 모두 PK 차지… 핵심 당직도 소외」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경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정운영의 한 축인 국회에서 대구·경북은 없다. 한나라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자당 몫의 국회의장에 6선의 박희태 의원을, 국회부의장에 4선의 정의화 의원을 선출했다.

박 의원은 경선에 출마한 이윤성 의원이 막판 사퇴함에 따라 만장일치로 결정됐고, 정 의원은 박종근(대구 달서갑), 이해봉(대구 달서을) 의원과 경선을 벌인 끝에 전체 156표 가운데 97표를 얻어 국회 부의장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에 앞서 지역의원들은 박종근·이해봉 의원의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단일화해도 표차가 커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두 의원에 대해 ‘꼴사납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박희태·정의화 의원 모두 PK(부산·경남)이니 부의장은 대구·경북이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박종근 의원은 “대구가 팔시 받아도 되느냐”라는 정서가 있다. 내가 부의장에 당선되면 인사에 있어 탕평책이 해결되는 것임을 염두해달라”며 지역정서를 호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TK는 18대 국회 전반기와 하반기에도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

단까지 PK에 모두 내어주면서 국회직과 핵심당직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결국 TK지역은 정권창출에 가장 공헌하고도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직을 비롯해 한나라당의 핵심당직이라 할 수 있는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최고위원에서 배제된 셈이다. 겨우 18대 초반에 주호영 장관(대구 수성읍)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고,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과 김성조 의원(구미갑)이 정책위의장을 이어받은 것 외에는 TK의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국회의원의 ‘꽃’이라는 상임위원장 자리에도 TK는 배제되고 있다.

전반기에 유일하게 이병석 의원(포항 북)이 국토해양위원장을 맡아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큰 힘을 쏟았지만 하반기에는 김성조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 자리를 꿰차는데 그쳤다.

이인기 의원(고령 · 성주 · 칠곡)이 안경률 의원에 이어 1년씩 행정안전위원장을 맡는 정도다.

이와 관련, TK의 한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도록 경북에서 72.5%, 대구에서 69.4%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을 보면 TK가 과연 정권을 창출한 지역이 맞는지에 대한 자괴감마저 든다”면서 “이제 지역은 친이, 친박 계파싸움을 떠나 7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또 다시 소외되지 않도록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18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몫 부의장 후보를 선출한 것과 관련, 대구 · 경북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소외되었으며 한나라당 핵심당직에서도 이 지역 출신의원들이 배제되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리드 부분에서 “국정운영의 한 축인 국회에서 대구 · 경북은 없다.”라는 사실을 왜곡 내지 과장한 표현으로 시작하여, “TK는 18대 국회 전반기와 하반기에도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단까지 PK에 모두 내어주면서 국회직과 핵심당직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TK지역은 정권창출에 가장 공헌하고도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직을 비롯해 한나라당의 핵심당직이라 할 수 있는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최고위원에서 배제된 셈”, “국회의원의 ‘꽃’이라는 상임위원장 자리에도 TK는 배제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도록 경북에서 72.5%, 대구에서 69.4%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을 보면 TK가 과연 정권을 창출한 지역이 맞는지에 대한 자괴감마저 든다”는 한 TK 출신 의원의 말을 인용해 전하고 있다.

결국 이 기사는 한나라당 정권의 창출에 있어서 TK지역이 공헌한 점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의 당직, 국회의장 및 부의장 직 선출 등에 있어서 TK지역이 능력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한 몫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명분이나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지역의 우월적 지위를 노골적으로 주장한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경북일보가 경북지역에서 발간되는 지역신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설이나 칼럼도 아닌 사실 보도 기사에서 이러한 보도행태를 보이는 것은 건전한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는커녕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③항(사회적 책임), 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5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부산일보 발행인 김 종 렬
2. 每日新聞 발행인 이 창 영
3.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주 문〉

부산일보 2010년 7월 13일자 12면 「“MB정권 2기에 부 · 울 · 경은 없다”」

제하의 기사, 毎日新聞 7월 16일자 6면 「“무늬만 TK MB, 여론 밀려 TK 역차별”」 제하의 기사, 7월 20일자 6면 「이젠 親李까지…, 당내 TK는 없다」 제하의 기사, 8월 11일자 6면 「“이재오 · 홍준표, TK 대변자로 나서야”/당 · 정 · 청 인사 대구경북 출신 전멸… 對정부 소통창구 아예 꽉 막혀」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7월 20일자 1면 「‘영포’ 유탄…또 뒤통수 맞은 TK」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이 유〉

1. 부산일보 毎日新聞 영남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일보)=『“2기 이명박 정권의 핵심권력에 더이상 부 · 울 · 경은 없다.”

13일 오후 공식 발표 예정인 청와대 수석급 주요 직책에 부산 · 울산 · 경남 출신들이 전면 배제됨에 따라 2기 체제에 들어간 이명박 정권의 중앙권력에 ‘부 · 울 · 경 공동화’가 현실화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통합과 소통을 강조하며 충청권 인사들을 배려하면서도 대구 · 경북 인사들도 동시에 챙겼다. 대신 이 대통령은 ‘요직 중의 요직’으로 통하는 청와대 수석급에 부 · 울 · 경 출신들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PK 출신 청와대 수석들이 지역의 민원창구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후 2시께 단행할 청와대 수석급 인사에서 백용호 국세청장을 신임 정책실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청장은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맡았고 이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바른정책연구원을 이끌어왔다.

정무수석에는 3선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인 정진석 국회 정보위원장이 내정됐고, 홍보수석에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내정됐다.

신설된 사회통합수석에는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내정됐다.

이들 중 백 정책실장 내정자는 충남 보령, 정 정무수석 내정자는 충남 공주,

박 사회통합수석 내정자는 경북 칠곡 출신이다.

한때 이 대통령의 높은 신임을 바탕으로 정책실장으로 유력했던 부산고 출신 박재완 정책기획수석과 대통령실장의 물망에 올랐던 박형준 정무수석은 이번 인사로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지역현안 해결의 ‘최고 창구’이다. 최근 박 정무수석이 부산시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통합을 잠정 보류시켰듯이 청와대 내에 수석급 인사가 얼마나 많이 포진돼 있느냐는 주요 지역현안 해결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毎日新聞)〈“무늬만 TK MB, 여론 밀려 TK 역차별”〉=『한나라당 전당대회 결과 ‘PK(부산경남) 독식구조’가 심화되고, 청와대 일부 개편에서도 수도권과 충청권이 약진하는 대신 ‘TK(대구경북)’가 주변부로 급격하게 밀리면서 지역에서 현 정권에 대한 소외감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유력한 이병석(포항북) 의원의 영포회 관련 설이 나돌면서 경남 출신의 3선인 권경석 의원(창원갑)이 대안으로 떠오른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특히 차기 총리로 물망에 오른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를 두고 ‘TK 대통령에 TK 총리는 어렵다’는 기류가 걸림돌로 작용하자 지역에서는 소외감을 넘어 불만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제대로 된 TK 출신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에 밀려 TK를 너무 홀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중략)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자신을 TK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 · 도민들은 수도권과 더 정서적 친밀감이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대통령이 TK인 탓에 TK 출신을 총리로 앉힐 수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은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봐도 TK를 홀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부산경남에서 민주당의 약진으로 한나라당이 완패했지만 대구경북은 70% 이상의 지지로 변함없는 애정을 보냈다는 것. 그런데도 한나라당 지도부와 청와대 인사에서 TK가 소외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중략)

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구경북은 15년간의 찬밥신세에서 벗어나 획기

적인 지역 발전을 기대했지만 실상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하략)』

〈이젠 親李까지…, 당내 TK는 없다〉=『“친박에 이어 친이도 타격받았다. 이제 대구경북은 당내에 없는 존재인가?”

이병석 의원이 사무총장 인선에서 탈락하자 허탈감에 빠진 지역 정치권의 반응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19일 신임 사무총장에 3선의 원희룡 의원을 내정했다. 당초 신임 사무총장은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인 이병석 의원이 유력했으나, 결국 원희룡 의원이 최종 낙점됐다.

안 대표는 당 쇄신과 개혁, 인사 탕평, 화합과 소통 등 다목적 포석을 위해 원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이번 당직 인선을 놓고 지역 정치권은 분통을 터트렸다. 고위당직 갈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됐던 친이계 이 의원마저 탈락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친박은 비주류라서 소외됐다고 쳐도 대통령 측근인 지역 내 친이계 핵심마저 여당 당직에서 뒷전으로 밀려나자 소외감과 허탈감은 배가된 것이다.

인선 배경도 지역 정치권을 자극했다. 조해진 대변인이 “원 의원은 젊고 개혁적이며 경륜을 겸비한 3선의 중진 의원으로 사무총장에 가장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밝힌 데 대해 “그럼 대구경북 인사는 늙고, 비개혁적이며 경험도 없느냐”고 지역 정치권은 항의했다.(하략)』

〈“이재오 · 홍준표, TK 대변자로 나서야”…〉=『8·8 개각으로 지방선거 이후 두달 여 간 진행된 당 · 정 · 청 인적 쇄신이 마무리된 이후 지역의 목소리를 권력 핵심 포스트에서 전달할 ‘메신저’가 실종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중앙과 지역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온 정정길 대통령실장(경북고)과 주호영 특임장관(능인고),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대구고)이 함께 물러나면서 ‘핫라인’이 사라진 것이다.

야권과 한나라당 내 일부에서는 이번 개편을 두고 특정 지역 편중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구경북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선 내각에서 대구경북 출신 장관 내정자는 2명(이재오 특임 · 이주호 교육)으로 서울 · 경기(5명)는 물론 부산 · 경남, 충청, 호남(이상 각 3명)보다 더 적어졌다. ‘강제섭 총리론’도 한때 등장했지만 결국 경남 거창 출신인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로 낙점됐다. 또 국회와 한나라당 요직에서도 지역 출신 인사는 전멸한 상태다. 청와대 참모진도 임태희 대통령실장-백용호 정책실장-정진석 정무수석 등 타 지역 출신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수도권에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와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중앙 정치 위주로 활동하는 ‘범TK’로 분류되면서 지역과의 소통에 소홀했지만 이제는 고향 발전을 위해 뛰어야 한다는 기대 섞인 주문이다.(하략)』

(영남일보)〈‘영포’ 유탄…또 뒤통수 맞은 TK〉=『TK(대구 · 경북) 정치권이 또 물을 먹었다.

당초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유력시되던 3선의 이병석 의원(포항북)이 안상수 대표로부터 낙점을 받지 못했다. 이 의원 대신에 3선의 원희룡 의원(서울 양천갑)이 사무총장에 내정됐다.(중략)

‘원희룡 카드’는 갑작스러운 교체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전대를 통해 누가 대표가 되든 사무총장으로 지명될 것으로 여겨졌다.(중략)

이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내정되지 않은 데는 ‘영포회 논란’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일 · 포항 출신의 공직자 출신 모임인 영포회의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영똥하게 이 의원이 ‘유탄’을 맞은 꼴이라는 것.

한나라당 최고위가 친박을 의식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친이 주류인 안 대표 체제에 대한 친박의 우려감을 해소하기 위한 ‘화합의 제스처’로 친이 핵심인 이 의원이 아닌 중도 쇄신파인 원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해석이다.(중략)

TK 정치권으로선 ‘사무총장 카드 교체’로 3차례나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중략)

국회직과 당직에 ‘TK 정치권의 소외론’이 확산되면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안 대표가 전대 과정에서 “대표에 당선되면 TK 정치권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더욱 그렇다.

한나라당 안팎에서도 ‘이병석 사무총장 카드’가 사라지면서 TK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고 있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제목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 한나라당 전당대회, 대회 이후의 주요 당직 인선 등 지방선거 이후 진행된 당·정·청의 인사내용과 관련해 각각 해당 지역 인사들이 소외당했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들이다.

부산일보는 “2기 이명박 정권의 핵심권력에 더 이상 부·울·경은 없다.” 13일 오후 공식 발표 예정인 청와대 수석급 주요 직책에 부산·울산·경남 출신들이 전면 배제됨에 따라 2기 체제에 들어간 이명박 정권의 중앙권력에 ‘부·울·경 공동화’가 현실화됐다.”고 기술하고, 每日新聞은 “한나라당 전당대회 결과 ‘PK(부산경남) 독식구조’가 심화되고, 청와대 일부 개편에서도 수도권과 충청권이 약진하는 대신 ‘TK(대구경북)’가 주변부로 급격하게 밀리면서 지역에서 현 정권에 대한 소외감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친박에 이어 친이도 타격받았다. 이제 대구경북은 당내에 없는 존재인가?”라고 기술하였다.

영남일보는 “TK(대구·경북) 정치권이 또 물을 먹었다. 당초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유력시되던 3선의 이병석 의원(포항북)이 안상수 대표로부터 낙점을 받지 못했다.”고 적었다.

지역 신문으로서 자기 지역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부·울·경은 없다’ ‘무늬만 TK’ ‘TK 역차별’ ‘우리가 핫바지냐’ ‘당내 TK는 없다’ ‘당·정·청 인사 대구경북 출신 전멸’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친 과장이 아닐 수 없다.(참고로 동아일보

7월 21일자 A31면 오늘과 내일 칼럼 「MB의 노무현식 人事」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코드가 이념이었다면 이명박 정권의 코드는 ‘TK(대구경북)’이다.”라며 그 사례들을 예시하고 있다. 또 경향신문 7월 22일자 5면 「靑 참모진 56명 중 23명이 ‘영남」 기사에서 비서관급 이상의 출신지는 대구·경북이 18명, 부산·경남이 5명이라고 기술하였다.)

결국 위의 기사들은 자기 지역이 한나라당 정권의 창출에 공헌한 점을 이유로 당·정·청 등의 인사에서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이 일정한 몫, 그것도 상당히 비중이 있는 몫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기사들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명분이나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지역의 우월적 지위를 노골적으로 주장한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사설이나 칼럼도 아닌 사실 보도 기사에서 이러한 보도행태를 보이는 것은 건전한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는커녕 지역감정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정도를 벗어났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항(사회적 책임), 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27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박 행 환

〈주 문〉

헤럴드경제 2010년 11월 10일자 10면 「토착·선거 비리수사 ‘서부벨트’ 쏘림현상?/호남·충청지역만 집중/야권엔 ‘표적수사’ 발미」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검찰과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토착비리 및 선거비리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검·경의 이번 비리수사가 호남·충청지역에 집중되는 ‘서부벨트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눈길을 끌고 있다.

‘야당 텃밭’이 절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야권의 ‘표적수사’ 주장의 빌미가 되고 있다.

10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검·경에 따르면 토착비리 수사의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청, 나주시청 및 산하 읍·면사무소, 전주시청, 익산시청 등 4곳 모두 호남지역 지자체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반면, 영남·강원지역의 경우 토착비리 수사는 거의 없다.

선거비리 수사의 경우에서도 호남지역 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14명의 시장·군수 가운데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 강인형 순창군수, 임정엽 완주군수, 윤승호 남원시장, 김충석 여수시장, 전완준 화순군수 등 호남지역 기초단체장이 6명이나 된다.

또 충청권인 우건도 충주시장, 성무용 천안시장, 김세호 태안군수 등도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경기도에서 김학규 용인시장, 박상욱 오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김선기 평택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5명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반면, 동부권역인 영남권에서 수사대상은 정윤열 울릉군수 한 명에 그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다세대주택 증축 과정에서 구청 측의 묵인으로 불법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광주 서구청 건축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다세대주택 관련 서류를 가져갔다. 전남경찰청은 1~2일 물품 구매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나주시청과 산하 읍·면사무소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주에서는 지난달 시청 공무원 4명이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기소됐으며, 익산에서는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시청 고위간부 등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는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측근 최모(52) 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강인형 순창군수는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정엽 완주군수, 윤승호 남원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단서가 나와 수사를 하는 것일 뿐 이를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위 기사에서 지방 토착비리 및 선거비리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가 ‘야당 텃밭’인 호남과 충청지역에 집중돼 야권이 ‘표적수사’라고 비판하는 데 빌미를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기사내용에 맞춰 큰 제목은 「토착·선거 비리수사 ‘서부벨트’ 쏠림 현상?」으로, 작은 제목은 「호남·충청지역만 집중/야권엔 ‘표적수사’ 빌미」라고 달았다.

기사는 토착비리와 관련해 11월 10일 현재 호남지역 지방자치단체 4곳이 수사 대상에 오른 반면 영남·강원 지역에서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선거비리 수사에서도 수사 대상인 시장·군수 14명(기사대로라면 15명이어야 하는데 취재기자의 착오로 보임) 가운데 호남지역 단체장이 6명, 충청 3명, 경기 5명인 반면 영남권 수사대상은 울릉군수 1명뿐이라는 것이다.

기사는 이 같은 통계수치의 구체적인 출처는 밝히지 않았는데, 확인 결과 위 신문보다 하루 전에 발간된 중앙일보 11월 9일자 8면 「검·경, 이번엔 지자체 토착·선거 비리 겨누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도표 내용을 참고하여 기사를 작성하면서 일부 내용은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지방기획’ 성격의 위 기사에서 지역별 검·경 수사 사례를 임의로 취합하면서 확인된 수사 대상 자치단체장들의 명단을 도표로 정리했는데, 헤럴드경제는 이 같은 중앙일보 기사 내용이 전국적 수사 진행상황의 전

부인 양 통계치로 만들어 기사화했다.

위 기사 마지막 부분 “비리 단서가 나와 수사를 하는 것일 뿐 이를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검찰 관계자의 코멘트도 중앙일보 기사 내용 중 정의식 전주지검 차장의 발언을 자구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베낀 것이다.

결국 헤럴드경제 기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정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는 내용의 중앙일보 기사를 ‘비리 수사가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요지로 각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헤럴드경제는 특히 수사가 ‘서부벨트’ 쪽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부터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간과했다.

연합뉴스 11월 2일자 창원발 기사는 검 · 경의 토착 · 선거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경남 함안군수와 창녕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창원의 최철국 국회의원과 김한겸 전 거제시장이 개인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11월 8일자 춘천발 기사는 강원지역 시장 · 군수 4명과 전직 단체장 1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현직 단체장 1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전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불과 며칠 전에 제공된 이 같은 연합뉴스 기사의 내용을 위 기사에서 빠트린 이유가 단순히 ‘취재 성의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서부벨트 쏠림 현상’을 강조하느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유가 어느 쪽이든 지역감정을 자극할 소지가 큰 위 기사는 구체적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취재기자의 예단이나 자의적인 판단에 꿰맞춘 왜곡 · 과장 기사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기사는 특히 중앙일보 기사의 상당 부분을 표절하고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③항(사회적 책임),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62 신문윤리강령 위반

全羅日報 발행인 유 춘 택

〈주 문〉

全羅日報 2010년 12월 7일자 1면 「충남, 해상 영역분쟁 또 ‘생떼’」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全羅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충남지역 정치권과 서천군 어민들이 7일 도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는 등 군산시와의 해상경계 분쟁을 표면화함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중략)

6일 서천군에 따르면 서천군민들은 군산시와의 해상경계가 일제시대 수탈을 위해 설정됐던 만큼 이제라도 바로 잡아 수십 년 동안 논란의 빌미가 됐던 서천어민들의 어업권을 보장해달라는 것.

또한 서천군민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은 물론 해상시위, 군장대교 점거 등 실행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중략)

뿐만 아니라 서천군민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인 군장대교 공사현장을 점거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군산과 충남 서천을 잇는 군장대교가 건설됨에 따라 군산시의 발전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서천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서천군의 입장이다.

LNG복합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군산 서천간 분쟁도 또 다시 술렁일 전망이다.

한국서부발전(주)이 운영하고 있는 군산 LNG복합화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서천지역 어민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천지역 주민들은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서천군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데다 지난 6월 가동으로 김과 어패류 등 서천 근해 양식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서천군의 움직임에 대해 이해의 목소리도 들리지만 지역 이기주의에서 표면화된 일부 지역의 움직임인 만큼 공식 대응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천군의회에 이어 충남도의회가 한 목소리를 냈지만 이후 서천군의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는 내부 목소리까지 들리면서 일단 충남도 차원의 움직임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충남도 역시 경기도 평택과의 신규 매립지 영토분쟁에 있어서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 해당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획득한 만큼 입장표명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서천군민들의 주장대로 실행행사가 이뤄질 경우 전북과 충남 간의 지역 간 분쟁이 불 보듯 뻔한 만큼 충남도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논란과 서천군 해상경계 부정 등 충남과의 갈등 소지가 서천군에 의해 대다수 제기됐지만 이들 문제 모두 정부와 법에 의해 검증됐다는 점에서 논란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충남 주민들이 서천군과 군산시 간의 해상 영역 경계선 설정 변경 등을 요구하며 해상 시위 등 실행 행사에 나설 계획이라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기사 내용은 이와 관련한 주장과 움직임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제목은 충남 주민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생떼’로 단정, 비난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사 내용에도 없는 주장을 담은 이러한 제목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편향된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으며, 자칫하면 지역 갈등을 조장 또는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③항(사회적 책임), 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

준칙」 ①항(보도 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3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每日新聞 발행인 이 창 영
2. 全北日報 발행인 서 창 훈
3. 경남신문 발행인 김 순 규
4.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김 공 가

〈주 문〉

每日新聞 2011년 1월 19일자 1면 「보이는가, 7백만의 서명이…」, 1월 26일자 6면 「“신공항 · 과학벨트 이번에 놓치면 다 죽는다”/유승민 시당위원장 기자회견담회」, 全北日報 1월 19일자 3면 「전북도-정치권, 김황식 총리 면담…무슨 얘기 오갔나/“LH 분산배치 거부 땀 민란 일어날 것”」, 경남신문 2월 7일자 1면 「부산, 이성 앓은 ‘펼침막 공세」, 경북도민일보 2월 11일자 1면 「“신공항” 결정 미루면 民亂/대구 · 경북 의원, 임태희 대통령실장에 결단 촉구」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每日新聞 全北日報 경남신문 경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每日新聞)〈7백만 서명〉=『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서명운동 참가자가 700만 명을 돌파했다.』

19일 영남권 4개 시 · 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신공항 밀양 유치 서명에 참여한 대구 · 경북 · 경남 · 울산 지역 주민이 7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중략)

대구경북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터미널, 기차역, 전통시장,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시·도민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밀양 유치 홍보 및 서명운동을 벌여 지금까지 대구는 200만 명, 23개 시·군이 참가한 경북은 490만 명이 서명했다. (중략) 밀양을 비롯한 경남지역민들은 밀양 7만 3천여 명을 비롯해 20여만 명이 서명했다.(중략)

이에 따라 추진단과 영남권 4개 시·도 등은 밀양 신공항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신공항 밀양유치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집중 전개하는 한편 이달부터 수도권지역에서 밀양 신공항 유치 홍보물 배부와 서명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또 유치 결정이 미뤄질 경우에 대비해 신공항 유치 염원을 담은 서명록을 국토 해양부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계획 중이다.(후략)』

〈“…이번에 놓치면 다 죽는다”〉=『“신공항 밀양 유치와 과학비즈니스 벨트 지금 (유치) 안 하면 못 한다.”

유승민 한나라당 대구시당위원장(대구 동을)은 25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신공항 밀양 유치와 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유 위원장은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부산시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올 3월로 예정된 입지선정 발표를 미루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소개하고 “입지 선정이 늦어질수록 밀양신공항 입지 선정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과학벨트가 충청으로 가고 신공항 발표마저 미뤄지는 최악의 경우 지역의원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는 대구시장이고 지역의원들이고 전부 다 죽었다 생각해야 한다”는 격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지역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밀양신공항 무산은 곧바로 지역민들의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고 이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엄청난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설명이었다.(중략)

또 과학벨트와 관련, “지난해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됐을 때부터 대구경북이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섰어야 했는데 다소 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어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후략)』

(奎北日報)=『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18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들과 김황식 국무총리의 면담은 시종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은 예정된 시간(30분)보다 10여분을 넘길 만큼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면담에 앞서 의원들은 처음부터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일부 참석자는 ‘LH본사가 일괄 배치된다면 이명박 정권은 사기정권’이라거나 ‘정부가 분산배치를 거부한다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세환 의원은 “정부가 처음에는 분산배치를 전제로 전북과 경남에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으면서도 이제 와서 일괄배치 움직임이 감지된다”면서 “결국 이명박 정권은 거짓말정권이자 사기정권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신건 의원은 “일괄배치된다면 치안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고, 조배숙 의원은 “정부안을 따르지 않은 경남에 대해 페널티를 줘야 하고, 분산배치가 안되면 민란이 날 것”이라며 지역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했다.(후략)』

(경남신문)=『“신어산 추락사고 잊었나. 첩첩산중에 공항이 웬 말인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간선도로변에 붙어 있는 동남권 신공항 관련 펼침막 문구다.

지난 2002년 김해공항 인근인 김해시 지내동 동원아파트 뒤편 신어산 줄기인 돛대산 기슭에 추락한 중국 민항기 사고를 빗대 내륙 쪽인 밀양이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표현이다. 실종자 2명을 포함해 129명이 사망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의 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부산시는 이를 동남권 신공항의 가덕도 해안 유치 명분으로 악용하고 있다.

신공항을 밀양에 유치하려는 경남·경북·대구·울산지역과 가덕도로 유치하려는 부산의 경쟁이 지역 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정도를 넘어서 치졸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어 경남도민은 물론 부산시민들의 눈살마저 찌푸리게 하고 있다.(중략)

펼침막 문구를 살펴보면 ‘부산가덕 신공항만이 유일한 선택’, ‘부산가덕해안

신공항 입지 0순위' 등 입지 여건의 우수성을 주장하기보다는 감성적이고 당 위적인 내용이 다수다.(중략)

해운대구, 수영구 등 부산 시내 거리 곳곳에도 동남권신공항 유치 펼침막이 거의 도배되다시피 걸려 있기는 마찬가지다.

‘탁 트인 바다 두고 짝 막힌 산속으로 가자고?’, ‘내 집 앞 밀양에 공항을? 공항이 버스정류장인가?’ 등 슬로건 문구가 녹산공단 거리변보다 훨씬 더 원색적이고 자극적이다.(후략)』

(경북도민일보)=『한나라당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10일 오전 여의도에 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만나 영남권 신공항 입지 3월 결정을 촉구했다.

이인기 경북도당위원장과 유승민 대구시당위원장 등 지역국회의원 11명은 영남권 신공항은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하고, 특히 3월 입지 결정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3월 입지결정이 또 연기된다면 정치적 혼란과 민심이반, 지역분열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게 될 것이므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신공항 입지결정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중략)

이 자리에서 박종근 의원은 “대구 · 경북 · 경남 · 울산 1500만 명 인구 하고 부산 300만 명의 대결”이라고 전제한 뒤, “3월에 지역 입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지역감정이 격해져 민란 수준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무조건 결정하라”고 요구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각각 동남권 신공항입지 선정, 과학비즈니스벨트 위치 선정, LH 본사 분산배치 지역의 경제 사회적 이익과 직결된 민감한 이슈들을 둘러싼 해당 지역의 이해타산에 바탕을 둔 기사들이다.

해당 기사들은 그런대로 사실 보도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제목의 표현들은 기사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감정 · 희

망 · 의지 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지역 신문으로서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기사들의 제목은 사실 보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정책 결정과 관련이 있는 당국자들에 대한 압박, 상대지역에 대한 비난 등의 의미를 함축한 것들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보도기사의 제목이라기보다는 사설이나 칼럼 제목을 방불케 하며, 자칫하면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 또는 심화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에 놓치면 다 죽는다”거나 ‘민란’ 운운의 발언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제목에까지 올려놓은 것은 이성적인 신문 제작 행위로 보기 힘들 정도다.

이러한 기사 제목들은 신문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크게 해치고 나아가 해당 신문은 물론 신문 전체의 신뢰성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③항(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없이 사실 왜곡 · 과장

▲ 2010 - 1155 신문윤리강령 위반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주 문〉

영남일보 2010년 7월 30일자 3면 「“불꺼진 대구, 서울이었다면 폭동까지 일어났을 것”」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영남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5년간 분양가의 46%만 내고, 나머지도 2년 뒤 아파트 값이 분양가보다 내리면 3천만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대형 아파트 한 채를 사면 덤으로 중소형 아파트 한 채를 드립니다.” “아파트 분양받고 벤츠 승용차 받아주세요.” “취 · 등록세 모두 대신 내 드리고, 분양가도 35%까지 할인 받으세요.”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고 있는 건설사들이 분양촉진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내건 조건들이 애처롭다 못해 눈물겹다.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일 정도로 심각하다. 5월말 기준으로 대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1만6천303가구. 전국 미분양 주택 (11만460가구)의 14.8%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에서 경기도(2만2천349가구)에 이어 두번째지만, 인구수(대구 248만명 · 경기도 1천172만명)를 감안하면 대구가 경기도보다 3.5배나 많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의 경우, 대구는 1만1천663가구에 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1만가구를 넘는다. 심각성을 더해주는 수치다.

이진우 부동산114 대구경북지사장은 “만약 서울에서 대구와 같은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다면 벌써 수년 전에 폭동사태에 가까운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면서 “전국의 주택 · 건설업체는 대구의 미분양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해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설업체 한 두 곳은 대구에서 건설한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하루빨리 분양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건설업체들이 파격분양에 나설 수밖에 없다.(중략)

문제는 파격 할인분양에도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준공한 아파트를 빈집으로 놔둘 수 없게 되자, 건설업체들은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돌려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자금을 융통시키고 있다.(중략)

분양대행사 장백의 박영곤 대표는 “미분양 단지에서 중대형 평형을 싸게 전세로 내놓으면서 중소형 전세값이 중대형 전세값을 오히려 역전하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설사들의 임시방편 미분양 해소책이 시장에 악영향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미분양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대구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한 부동산 정보업체 대구경북지사장이 밝힌 “만약 서울에서 대구와 같은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다면 벌써 수년 전에 폭동사태에 가까운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을 전하고, 이를 토대로 ‘불꺼진 대구’라는 선정적인 문구를 집어넣어 <“불꺼진 대구, 서울이었다면 폭동까지 일어났을 것”>이라는 통단 크기의 대형 제목을 뽑았다.

아파트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시장 수요와 경기전망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사업을 벌인 건설업체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기사는 이러한 문제 발생의 원인이나 책임소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마치 이러한 상황이 서울에서라면 폭동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러한 상황에게 이른 데에는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비치고 있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 폭동이라 함은 시민들이 정부나 사회에 불만을 갖고 일으키는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컫는 것으로 폭동의 발생에는 정부나 사회에 부분적으로라도 책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또 건설업체들이 스스로 벌인 일의 잘못된 결과를 놓고 정부나 사회를 상대로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주장이라면 그 또한 아무런 객관적인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 그 점은 이 상황이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다를 이유가 없다. 따라서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가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도 주장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본 후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를 함께 제시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아무 근거도 없는 이해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기사를 작성한데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제목에까지 반영한 것은 지역 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푸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끌어내기 위한 지방신문의 안간힘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보도는 사실의 중대한 왜곡으로서 신문 보도의 정도에서 일탈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③항(사회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5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每日新聞 발행인 이 창 영
2. 경북일보 발행인 정 정 화
3.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주 문〉

每日新聞 2010년 7월 8일자 1면 「영포회 논란… 타깃은 ‘TK 죽이기」」 제하의 기사, 경북일보 7월 9일자 1면 「영포회 공세는 ‘TK죽이기’ 마녀사냥」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7월 13일자 1면 「박영준(총리실 국무차장)의 ‘반격’/“가만 있다간 공직계 TK인맥 또 씨 마를 판”」 제하의 기사, 4면 「TK를 ‘찬밥’으로 만들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이 유〉

1. 每日新聞 경북일보 영남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每日新聞)〈영포회 논란… 타깃은 ‘TK 죽이기」〉=「TK(대구경북)가 사면초가(四面楚歌),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처지에 몰리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계기다. 정치권과 언론은 이인규 공직

윤리지원관의 고향이 영덕이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 TK 출신이 많다는 점을 빌미로 TK 인맥에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칠곡 출신으로 오성고를 졸업한 박영준 국무차장과 포항 출신의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타깃이다. 야권은 박영준을 넘어 이상득 전 국회의장에까지 전선을 확장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공기업 인사를 담당했던 이승균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공격도 거세다.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과 유선기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장, 김대식 전 전남지사 후보 등 충청 호남 출신까지 박영준 라인으로 분류해 TK가 마치 악의 뿌리처럼 몰아붙이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인물 물갈이부터 하는 게 관행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포항 출신이고 이명박 정권 창출에 TK가 가장 큰 공을 세운 만큼 TK를 발탁해 전진 배치하는 것은 어찌면 순리다. 정권 출범 초기 TK 발탁의 중심에 박 차장이 섰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박 차장은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의 견제를 받아 한동안 야인 신세가 되는 등 힘을 잃었다. 이상득 전 부의장도 ‘형님 예산’ ‘만사형통’(萬事兄通) 공격에 2선으로 물러났다. 좌고우면(左顧右盼)하는 두 사람에게 대구경북에서는 “이제 집권 후반기가 된 만큼 제역할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견제에 맞닥뜨리고 있다.(중략)

그런 TK가 이명박 정권 들어 약진하자 견제가 나오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보면 TK, PK(부산경남), 호남이 권력 다툼의 중심에 서있다. 최근 수도권이란 새로운 지역 세력이 생기고 있다. TK의 약진은 타지역의 손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번 영포회 논란이 권력다툼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청와대와 내각 인사를 목전에 두고 있어 그러한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TK가 이처럼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 모두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이란 아마추어식 범죄를 비호하긴 쉽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몇몇의 고향이 대구경북이라고 TK가 싸잡아 공격당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방어에 나서지 않는 데는 TK의 내부 분열이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바로 친이-친박의 분열이다.(중략) TK가 막무가내 식으로 공격당하고 이명박 정권이 성공하지 못하면 장래 TK의 설 자리조차 없다는 엄혹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일보)=『영포목우회(영포회)에 대한 마녀사냥식 정치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불법사찰에서 촉발된 영포회 파문은 지난 5일 영포회 전직 회장 등 관계자들이 민주당 당사를 방문하고 ‘항의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 해명함에 따라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듯 했다.

이 기획관과 비선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모두 영포회 회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인적인 돌출행동에 대해 영일군 포항시 5급 이상 중앙부처 친목 모임인 영포회 전체 매도는 정략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언론은 곧 ‘영포 라인’으로 명칭을 바꾸고, 나아가 선진국민연대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함께 묶어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면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영포게이트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국무총리실(6일), 청와대(7일)를 잇따라 항의 방문했다.

8일에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방문하는 등 공세를 높이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완승한 기세를 몰아 정부·여당에 ‘권력 남용’이란 오명을 씌워 7·28 재보선에서도 연승 가도를 이어간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영포회 회원은 아닐지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 인맥을 집중 공략하면서 정권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입히겠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아니지만 2년 전 한나라당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권력 사유화’ 발언으로 당시 박영준 국정기획비서관과 이상득 전 부의장을 겨냥한 것과 비

슷한 양상이다.

이 때문에 박 차장은 한동안 야인 신세가 되는 등 힘을 잃었다. 이상득 전 부의장도 정치 2선으로 물러났다.

두 사람에게 대구·경북에서는 “이제 집권 후반기가 된 만큼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전략적 공세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중략)

하지만 이인규 사건은 여당 내에서 각 세력들이 자파 이익을 위해 악용해 여당에게 더욱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내각 등 인적 쇄신을 앞두고 본격 제기됐다는 점에서 권력 핵심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는 세력이 ‘TK’그룹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상득-박영준 라인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단순한 입장차나 견해차에서 오는 마찰이 아니라 권력과 헤게모니 쟁탈을 위한 치밀한 계산에 따른 전략적 공세라는 주장이다.(중략)

이번 파문은 이명박 정부의 3년차를 맞아 충성도가 높은 TK지역 인사들이 발탁돼 정부의 성공과 차기 정권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배척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정부부처의 TK 인사들은 박영준 국무차장의 청와대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역차별을 우려하면서 전전공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일보)〈박영준의 ‘반격’〉=『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12일 자신을 포함한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공기업 등 정부 인사 문제를 논의한다고 주장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는 소위 ‘영포라인’과 ‘선진국민연대’의 정점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박 차장이 자신과 주변을 겨냥해 무차별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여·야 정치

인 및 언론에 대해 합법적 절차를 통한 반격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중략)

정치권 일각에서는 2년 전 박 차장과 ‘권력 사유화 논란’을 일으킨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여권 내부에서 6·2지방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비껴가고, TK 인맥의 싹을 자르기 위해 인사 개입 의혹을 흘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 대응에 나선 박 차장에 대해 중앙의 대구·경북 출신 공직자들은 그가 TK 인맥을 대표해 ‘총대’를 멘 것으로 여기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사 개입 의혹이 ‘TK 인맥 죽이기’를 통한 권력투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차장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 15년 동안 TK 인맥이 철저하게 따돌림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살펴보니 중앙공직사회에서 TK 인맥의 씨가 말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겨우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가는 상황인데, ‘엉뚱한’ 사건이 터져 자칫 TK 인맥의 씨가 다시 마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하략)』

〈TK를 ‘찬밥’으로 만들겠다?〉=『최근 민주당이 동원된 여권 내부의 권력다툼 유탄으로 인사철을 맞은 관가에서 포항·영일 등 TK 배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출신 공무원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실 현재 여권에서 벌어진 갈등 양상은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광주 출신인 정두언 의원과 전남 영광 출신인 김대식 후보(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간의 ‘호남대표 다툼’이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정 의원 측이 호남표 분산을 우려해 김 후보에게 지명직 최고위원을 권유했지만, 김대식 후보가 출마를 강행한 것. 그러자 정 의원 측은 김 후보의 출마가 정 의원을 전대에서 떨어뜨리려는 ‘범(汎) 박영준파’의 음모라고 공공연히 주장했다. 김대식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과 함께 선진국민연대를 조직해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한 장본인이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에서 시작된 의혹 시리즈가 ‘영포목우회’ 파문으로 비화됐고, 다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맥으로 분류되는 선진국민연대로 옮겨붙으며 박 차장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TK 세력이 정조준 되고 있는

것. 여기에 7·28 재·보궐선거를 앞둔 민주당에선 각종 설을 내놓으며 싸움을 부추기고,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문제는 두 사람 간 호남대표 다툼의 유탄이 고스란히 대구·경북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라 마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미 50세가 다 된 사람이 시킨다고 듣느냐”며 “그런 데도 김 후보의 출마 책임을 박 차장 쪽으로 몰아붙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마치 대구·경북세력을 부도덕 집단인 것처럼 몰아붙이게 되니까지는 그 와중에 반사이익을 노리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 영향이 중앙관가에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인사철을 앞두고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부처 내에서 역차별을 받을 조짐이 보인다고 불안해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출신 한 공무원은 “지난 정부 15년 동안 대구·경북 출신들이 보직관리도 제대로 안될 정도로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며 “정권이 창출된 뒤 조금 안도했는데, 이제 정권창출 지역이라고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정치권의 문제 제기를 ‘TK 인맥 죽이기’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다.

기사들은 문제의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그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당시), 이상득 의원 등에 대한 비난이 단순히 문제의 당사자나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한 추궁을 넘어 당·정·청 등 공직사회의 TK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고향이 영덕이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 TK 출신이 많다는 점을 빌미로 TK 인맥에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과 유선기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장, 김대

식 전 전남지사 후보 등 충청 호남 출신까지 박영준 라인으로 분류해 TK가 마치 악의 뿌리처럼 몰아붙이고 있다.”(매일신문) “청와대와 내각 등 인적 쇄신을 앞두고 본격 제기됐다는 점에서 권력 핵심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는 세력이 ‘TK’그룹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상득-박영준 라인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경북일보) “정치권 일각에서는 2년 전 박 차장과 ‘권력 사유화 논란’을 일으킨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여권 내부에서 6·2지방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비켜가고, TK 인맥의 싹을 자르기 위해 인사 개입 의혹을 흘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에서 시작된 의혹 시리즈가 ‘영포목우회’ 파문으로 비화됐고, 다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맥으로 분류되는 선진국민연대로 옮겨붙으며 박 차장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TK 세력이 정조준 되고 있는 것.”(영남일보) 등의 기사가 그러한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사들은 스스로의 주장과는 달리 일각의 추정이나 분석 이외에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여·야의 문제 제기가 당·정·청의 TK 전체를 겨냥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 객관적으로 볼 때 현재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그들 중 일부가 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 수 있는 중대한 국기문제를 야기했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대구 경북지역이 현 정권의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직사회에서 TK 인맥의 싹을 자르거나 씨를 말리는 일이 실현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기사들의 이러한 분석이나 주장은 TK정권 하인데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TK인맥들이 상대적 우위의 지위를 잃게 될 지도 모른다는 일부 지역 인사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일 수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큰 제목이나 소제목에서 보듯이 <영포회 논란… 타깃은 ‘TK 죽이기’> <영포회 공세는 ‘TK죽이기’ 마녀사냥> <공직계 TK인맥 또 씨를 판> <TK를 찬밥으로 만들겠다?> 식의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표현을 여과없이 사용해가며 객관적 설득력이 결여된 일방적인 주장을 나열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기술을 해야 하는 사실보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책임있는 언론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③항(사회적 책임), 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①항(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원 노출로 인권침해 우려

▲ 2010 - 117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종 승

<주 문>

東亞日報 2010년 9월 8일자 A12면 「이화여고 교사 딸 수학경시 ‘성적 조작’ 논란/스펙쌓기 경쟁 과열… “다른 학교도 없진 않을 것”」 기사와 제목, 한국일보 9월 8일자 12면 「교내경시대회도 부모 특혜?/이화여고 간부 자녀 성적 부풀리기 의혹… 시교육청, 조사 착수」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東亞日報와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東亞日報)=『서울 이화여고에서 이 학교 교사의 딸이 교내 수학경시대회 수상 특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화여고가 6월 실시한 교내 수학경시대회에서 교무차장의 딸인 3학년 A양의 성적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이화여고에 따르면 A양은 9등까지 수상하는 교내 수학경시대회에서 공동 9등으로 입상했다. 그러나 평소 A양보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수상하지 못한 점을 의아하게 생각한 일부 교사들은 답안지를 확인했고 A양 답안의 채점이 지나치게 후한 것을 발견했다. 풀이과정 대부분이 틀렸고 답도 틀렸지만 만점에서 1점만 깎여 3, 4점의 부분점수를 받았던 것이다.

이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은 A양의 부모와 친분이 있는 교사가 채점을 전담했다며 학교에 재채점을 요구했다. 방학 중 모든 학생의 답안지를 다시 채점한 결과 다른 학생이 점수를 더 받으면서 A양은 12등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학교 측은 그대로 수상을 인정했다. 이 학교 교감은 “교사의 실수로 수상이 결정된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점수 조작 의혹에 대해 “수학경시대회 모든 문제가 서술형이기 때문에 교사마다 채점 과정에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양 부모 측은 “이화여고 출신과 타 학교 출신 교사 간의 파벌 싸움에서 나온 모함”이라고 말했다.

한 고교의 교내 경시대회 부정 의혹에 교육청까지 직접 나선 것은 달라진 대학입시제도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월 대학들이 지켜야 할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마련하면서 토익 토플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이나 교외 수상 실적 등은 주요 전형 요소로 반영할 수 없고, 교내 경시대회 등 학교 활동에 관련된 것만 반영하도록 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교내 경시대회 성적이 당락의 절대적인 요소가 된 것이다.(하략)』

(한국일보)=『자율형 사립고(자율고)인 서울 이화여고 교내 수학경시대회에서 학교 간부교사의 자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 실시된 이화여고 수학경시대회에서 이 학교 교무차장의 딸 박모(고3)양의 성적이 부풀려져 결과적으로 수상자가 뒤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장학사를 이화여고에 급파해 조사 중이다.

시교육청과 의혹을 제기한 학부모들에 따르면, 100% 서술형으로 치러진

수학경시대회는 9등까지 입상대상자였으며, 교무차장의 딸 박양은 문과반 시험에서 공동 9등을 했다. 그러나 시험이 끝난 뒤 평소 박양보다 수학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이 입상을 하지 못한데다, 문과반 출제와 채점을 도맡았던 교사가 교무차장과 친한 사이인 점 등을 의심한 이과반 채점 교사들이 답안지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표면화 했다.

학교 측의 재채점 결과 입상을 하지 못했던 2명이 9위 이내로 등수가 올라 수상자 명단에 추가된 반면 박양은 12등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학교 측은 수상자를 새로 확정하기는커녕 박양 등 기존 수상자는 그대로 둔 채 순위가 뒤바뀐 2명만 추가로 상을 인정했다.

학부모들은 박양이 3학년이 된 뒤 교내 대회에서 잇따라 상을 받은 점을 들어 일종의 특별관리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학부모 A씨는 “박양이 입상한 대회 대부분을 어머니인 교무차장과 친분이 있는 교사들이 주관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석중 교감은 “서술형 수학시험에서 부분 점수를 주는 것은 채점관의 재량”이라며 “다른 기준을 제시한 교사들의 동의를 받아 재채점도 이뤄진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교무차장도 “성적이 최상위권인 딸은 3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아왔고 수학 성적 역시 1~2등급을 놓치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시교육청은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식 감사를 청구해 성적 조작 사실이나 교무차장을 음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서울 이화여고 교무차장의 딸인 고3 재학생 A양(한국일보에는 박모양으로 표기)이 교내 수학경시대회에서 교무차장과 가까운 사이인 출제·채점 교사의 성적 부풀리기로 입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

이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다른 수학교사들과 일부 학부모들로 이들의 요구에 따라 재채점까지 실시됐고, 학교 측은 그로부터 한참 후 기자들이 취재에 나서자 “서술형 수학시험에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채점관의 재량이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채점을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다.

당사자인 교무차장은 “성적이 최상위권인 딸은 3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아왔고 수학 성적 역시 1~2등급을 놓치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東亞日報는 A양 부모 측이 “이화여고 출신과 타 학교 출신 교사 간의 파벌 싸움에서 나온 모함”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학교 측이 다른 수학교사들의 요구대로 새로운 채점 기준에 맞춰 채점을 다시 한 결과, A양은 당초 석차보다 불과 3자리 아래인 12등으로 내려간 점으로 미루어 터무니없는 성적 부풀리기는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기사들이 제기한 ‘성적 조작’이나 ‘특혜’ 의혹도 기사 작성 시점에서는 논란 수준에 머물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다.

그런데도 東亞日報와 한국일보가 이 문제를 보도한 다른 언론들이 이화여고를 익명으로 표기한 것과는 달리 실명을 공개했고, 이에 따라 이화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지만 하면 해당 교무차장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교무차장의 신원이 드러남에 따라 딸인 A양의 신원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하고 말았다.

학교 측의 해명대로 단순히 채점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교무차장은 차치하고 A양도 결과적으로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A양이 신원 노출에 따라 받을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불이익을 감안한다면 東亞日報와 한국일보는 ‘이화여고’의 표기 문제에 보다 신중을 기울였어야 마땅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③항(사회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38 신문윤리강령 위반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주 문〉

내일신문 2011년 2월 1일자 8면 「군 투서 ‘육군 수사단장 횡령’ 사실/투서자는 헌병 병과 후배… 지난해 육군 조사 ‘부실’로 드러나」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해 군 장성진급인사를 앞두고 육군본부에 보낸 투서의 내용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해영(준장) 육군 수사단장이 전역서를 전격적으로 제출했다. 이 단장이 수방사 헌병단장으로 재직 시절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육군본부 수사단이 벌인 투서내용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시 조사를 지휘한 승장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김관진 장관이 투서자 색출을 지시한 것도 잘못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1일 “헌병 병과의 황 모 중령이 투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 준장이 수방사 헌병단장 시절에 일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투서자가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를 꺼려서 조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사내용은 1월 31일 김관진 장관에게 보고됐다”면서 “이 준장은 가까운 후배에게 투서를 받은 충격으로 같은 날 전역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전역지원서가 수리된 이 준장에 대해 황 중령이 더 이상 공금 횡령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 투서자인 황 중령은 내부 고발자로 처리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이해영 육군 수사단장(준장)이 수방사 헌병단장 재직 시절에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일부 확인됐고 이에 따라 이 단장이 전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 단장의 혐의가 육군본부에 보내진 투서에 의해 포착됐다고 전하면서 투서를 한 사람은 ‘헌병 병과의 황 모 중령’이라고 밝혔다. 이름은 감춰졌다 하더라도 그 수가 지극히 소수일 수밖에 없는 ‘헌병 병과의 황 모 중령’으로 표기된 이상 투서자의 신분은 금세 드러날 수밖에 없다.

신분 노출에 따라 투서자가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더불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내일신문은 투서자의 신분 표기에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이 같은 제작태도는 ‘언론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③항(사회적 책임),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관적 판단에 따른 일방적 기사

▲ 2010 - 1210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일보 발행인 정 정 화

〈주 문〉

경북일보 2010년 10월 13일자 1면 「시내버스 파업 아랑곳 않고 경주시의원 7명 해외 견학」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경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시내버스 운행중단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의원 7명이 2천 5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6박 8일 일정으로 해외견학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경주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 소속 4명과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3명 등 모두 7명의 의원들은 지난 6일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4개국 해외 견학을 위해 출국했다.

이번 의원들의 해외 견학은 선진 원자력과 세계 문화유산 운영 및 관리실태 등을 비교 견학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료, 입장료 등 1인당 36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수행 공무원 2명과 함께 해외 견학에 나선 의원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방폐물 처리실태를 견학하고 스위스의 원자력 발전시설, 이탈리아의 로마 교황청 및 바티칸 국립박물관 등의 견학이 방문일정에 포함돼 있다.

이번 유럽방문은 6대 경주시의원들이 단체로 나서는 첫 외국 방문이지만 경주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아랑곳 않는 외유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의원들이 출국한 지난 6일에는 경주지역 시내버스인 ‘천년미소’ 노조의 전면파업이 이미 예고된 상태였다. 노조 측은 올해 단체협약이 지난달까지 8차례에 걸친 협상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마저 결렬되자 지난 4일 파업출정식을 가진 후 3일 후인 9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처럼 노조의 파업이 예고된 상황이지만 시의원들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우기보다 해외 견학을 강행했다.

더욱이 이번 외유 의원 가운데 3명은 시내버스 관련 해당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시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오전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 수송대책’과 관련해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는 이들 의원 7명이 빠져 다소 썰렁한 분위기를 보이면서 일부 시민들은 “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어디 갔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일보의 위 기사는 경주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예고된 상태에서 경주시 의회 일부 의원들이 해외견학을 강행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들 시의원들의 해외견학 목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는지 쓸데없는 관광성 외유라는 식의 비판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시내버스 파업이 예고되어 있고, 7명 중 3명은 시내버스와 관련이 있는 경제도시위원회 소속이라는 점만을 들어 이들의 해외견학 강행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시내버스 파업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사용자와 노조 간의 문제이지만 공공의 이해가 관련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주시가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시의회 의원들까지 확정된 일정을 취소해야 할 만큼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판에 대한 경주시의회나 경제도시위원회 측의 설명이나 해명을 들어 함께 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해 작성한 일방적인 기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이 같은 기사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③항(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29 신문윤리강령 위반

全羅日報 발행인 유 춘 택

〈주 문〉

全羅日報 2010년 10월 26일자 1면 「또 새만금 해수유통 ‘대못질’」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全羅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니고 있는 환경부가 해수유통을 공식 거론함에 따라 그 동안 잠잠했던 해수유통 논란이 또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25일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새만금 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중략)

문제는 이번 환경부의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에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논란을 거듭해 온 새만금 해수유통이 공식 거론됐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이날 공식 발표에 있어 지난 10일부터 장비이동 등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해 새만금호의 수위가 해발 (-)1.6m까지 낮춰지게 되면 그 결과 바닷물의 유통량이 감소되면서 호내 정체수역이 형성되고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부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수질오염이 심화될 경우 배수갑문(해수유통)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친환경 준설 및 이송 공법을 적용해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하는가하면 오타 방지막과 다단계 침사지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정부와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 개선과 관련, ‘상향 조정된 목표수질이 달성될 수 있다고 예측될 때까지 배수갑문 개폐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수질 관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등의 해수유통 논란을 의식한 모호한 표현을 썼던 반면 이번 환경 가이드라인에서는 해수유통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선택했다는 점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 동안 도민들의 눈과 귀를 의식해 해수유통이라는 표현을 자제하다가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해수유통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해수유통이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중략)

결국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을 당초부터 반대해 온 환경부가 새만금 내부개발에 사업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수유통을 끝내 관철시켜 새만금 전체 사업의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론이 확산될 전망이다.

환경논리를 앞세워 새만금 생태 · 환경용지 구간 방수제 미축조 결정으로도 내부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환경부가 이제는 해수유통이라는 최대 난제를 가지고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환경부가 새만금 내부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새만금 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한 일을 비판적으로 다룬 기사다.

기사는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을 당초부터 반대해 온 환경부가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수 유통을 끝내 관철시켜 새만금 전체 사업의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론이 확산될 전망〉〈환경논리를 앞세워 새만금 생태 · 환경용지 구간 방수제 미축조 결정으로도 내부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환경부가 이제는 해수 유통이라는 최대 난제를 가지고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기술,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해수 유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환경부의 이 가이드라인이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을 혼드는 조치라고 비난하고, 제목에서도 환경부의 조치를 내부개발을 막는 〈‘대못질’〉이라고 못 박고 있다.

기사는 이 과정에서 해수 유통을 완전히 봉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재해에 대한 우려는 철저히 도외시해, 결국 해수 유통 차단을 통한 내부개발만이 최고의 선인 것처럼 독자의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 보도의 수준에서 일탈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신문사의 주관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③항(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범행수법 구체적 묘사

▲ 2010 - 1228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제신문 발행인 이 정 섭

〈주 문〉

국제신문 2010년 10월 26일자 8면 「춧농 · 터보라이터로 차털이」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국제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춧농과 터보라이터를 이용해 차량 잠금장치를 부수고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심야 시간을 이용해 차량과 체육관을 범행 대상으로 전자제품과 현찰 등 수백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2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1시께 수영구 광안동의 한 길가에 세워진 정모(40) 씨 소유의 승합차량 조수석 뒤 플라스틱 소재 유리창문 고리를 양초와 터보라이터로 녹인 뒤, 잠금장치를 부수고 1만 3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차량에 침입해 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중략)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달 20일 수영구 광안동의 한 사찰에 침입했다

가 석불상 앞에서 훔친 양초 2개와 문이 열려 있던 차량에서 훔친 터보라이터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자동으로 창문이 열리는 최신 차량이 아닌 뒤쪽 미닫이 창문 잠금장치가 플라스틱으로 된 승합차량은 플라스틱 부위에 열을 가한 뒤 커터칼을 이용하면 잠금장치를 쉽게 해체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훔친 양초와 터보라이터로 차량털이 범행을 해온 20대 청년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내용 중에 <이 씨는 “자동으로 창문이 열리는 최신 차량이 아닌 뒤쪽 미닫이 창문 잠금장치가 플라스틱으로 된 승합차량은 플라스틱 부위에 열을 가한 뒤 커터칼을 이용하면 잠금장치를 쉽게 해체할 수 있었다”고 진술>이라고 기술, 이 청년이 훔친 양초와 터보라이터로 차를 털는 수법과 범행이 손쉬운 차량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또 <한 사찰에 침입했다가 석불상 앞에서 훔친 양초 2개와 문이 열려 있던 차량에서 훔친 터보라이터를 이용>이라고 기술, 범행에 사용한 양초와 터보라이터를 어떻게 구했는지도 적었다.

이처럼 범행 도구의 입수 방법과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자세히 적은 것은 본의 아니게 유사한 범행에 악용될 소지가 커서 이 기사는 범죄사건 보도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③항(사회적 책임),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항(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차별과 편견의 금지

-소수자 등에 대한 편견

▲ 2010 - 1111 신문윤리강령 위반

慶南日報 발행인 이 연 근

〈주 문〉

慶南日報 2010년 5월 4일자 1면 「‘아시아나’ 지역 갈등 조장하나」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慶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시아나항공이 적자를 이유로 사천~김포간 노선 폐지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같은 이유로 폐쇄될 것으로 알려졌던 전남 무안공항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서부경남지역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남 무안공항~김포공항 노선은 탑승률이 사천공항의 절반가량 수준인데도 아직 노선폐지와 관련한 움직임이 없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천~김포 노선에 하루 한 편의 항공기를 운항해 왔으나 이용객들이 줄어들어 적자폭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사천공항의 폐쇄절차에 착수해 국토해양부에 노선 휴지신고(7~10월)를 제출해 지난달 26일자로 수리됨으로써 사실상 노선폐쇄가 공식화됐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국내 공항중 적자폭이 가장 커 사천공항과 함께 노선 폐쇄가 불가피하다던 전남 무안공항 노선(무안~김포)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전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차원에서 무안노선은 살려두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사천공항 노선과 함께 무안공

항 노선도 7월부터 운항을 중단기로 했다는 소식은 접했으나 아직 신고가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부경남주민들은 “탑승률이 40%인 사천공항 노선폐쇄는 서두르면서 2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무안공항 노선은 살리는 것 아니냐”하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천지역의 한 기업인(56)은 “기업의 목표가 이윤추구라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올 1/4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데 너무 기업이익만 내세우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항공편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부경남 지역민의 교통 불편을 감안해 사천~김포 노선 운항 중단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적자 운항을 이유로 사천~김포간 노선 폐지를 추진하면서 같은 이유로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던 무안~김포 노선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사천공항 노선과 함께 무안공항 노선도 7월부터 운항을 중단기로 했다는 소식은 접했으나 아직 신고가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다.”고 전하면서도 “전남 무안공항 노선(무안~김포)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전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차원에서 무안노선은 살려두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아시아나 측에 무안~김포 노선 폐지 여부를 확인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 간접적으로 문의한 뒤 불확실한 추측을 근거로 작성된 기사에 불과하다. 기사는 또 아시아나 측이 해당 노선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사천~김포 노선 폐지에 따라 경남지역 주민의 불만이 일고 있는데 대한 아시아나 측의 입장 등에 관해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전혀 없다.

이 같은 기사 작성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보도행태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30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 문〉

일간스포츠 2010년 11월 9일자 17면 「올겨울 ‘차도녀’(차가운 도시 여자)’ 되려면 컬러를 버려라」 제하 기사 중 「WORST 이정현 ‘차도녀’보다는 연변아가씨?」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블랙에 퍼를 걸친다고 다 ‘차도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정현에게서 알 수 있다. 요즘도 이 길이가 나오는지 의심스러운 맥시 원피스에 그레이 퍼를 둘렀다. 레드 악어클러치와 깔맞춤한 입술색깔, 어깨 한쪽으로 늘어뜨린 긴 머리가 ‘차도녀’보다는 연변아가씨 쪽에 가깝다. 헤어를 깔끔하게 묶거나 미니드레스로 가녀린 몸매를 드러내는 편이 나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올 겨울 여성들에게 ‘차도녀’(차가운 도시 여자)’라는 컨셉의 차림새가 유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인기 연예인들의 옷맵시를 비교·평가하면서 ‘워스트’로 꼽은 가수 이정현의 스타일을 ‘연변아가씨’로 묘사했다.

제목은 「WORST 이정현 ‘차도녀’보다는 연변아가씨?」로 달고, 기사도 “‘차도녀’보다는 연변아가씨 쪽에 가깝다”라고 표현했다.

문맥으로 미루어 ‘연변아가씨’는 ‘촌스럽다’ ‘세련되지 못하다’ ‘투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묘사는 ‘연변아가씨’로 함축되는 국내 거주 조선족 동포들의 처지에서 보면 가슴 아픈 비하이며 모욕일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조롱거리로 삼은 위 기사는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본분을 이탈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는 ‘언론인은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